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a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2월 16일 (토) 제 1718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밀레니엄 크리스천, '지상대명령' 이 걸림돌

바나리서치, "신실한 밀레니엄 중 47% '전도는 잘못' " 설문결과 발표

전도는 명령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요, 지상명령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다해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

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1-2).

그러나 미국 밀레니엄 세대 중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지상명령은 이제 걸림돌이 된다. 신앙을 나누고 전하는 데 갈등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도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Almost Half of Practicing Christian Millennials Say Evangelism Is Wrong).

신앙을 나누는 것 즉 전도나 포교는 많은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핵심 실천 요소이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는 "지상대명령"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도는 점점 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돼버렸다. 여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젊은 세대 즉 밀레니엄들에게는 전도는 잘못된 신앙 행위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바나리서치는 지난해 5월, 신앙생활에 충실한 992명의 크리스천들과 신앙적으로 독실하다는 평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1,001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설문을 펼쳤다(오차율 +/-3%, 신뢰도 95%).

세대를 불문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95-97%).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94-97%).

밀레니엄을 역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출중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밀레니엄 중 거의 3/4는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물어올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73%), 따라서, 타인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점에서도 '자신있다'고 응답했다(73%). 그만큼 모든 세대(Gen X 66%, Boomers 59%, Elders 56%)들이 어울려 볼 때, 밀레니엄들은 전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밀레니엄들은 실제로 전도를 일상에서 실천하기에는 확신이 없었다(Ready-but Not Willing-to Talk About Faith). 거의 반절 정도의 밀레니엄 크리스천들(47%)이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면서, 언젠가는 교회에 오게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도의 실제적 실천 영역에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Gen X 27%, Boomers 19%, Elders 20%). 이번 설문에서 제외됐지만, 만약 Z세대까지 조사를 했다면, 밀레니엄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젊은 크리스천들은 현재 미국 사회의 문화적 온도 차이와 영적 대화에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 밀레니엄들은 평균 친한 친구 중 4명 정도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부모인 부머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평균 1명을 가진 것에 비하면 대단한 차이를 보여준다.

(16면으로 계속)

사 고

본지 부설 출판사 '히스핑거' (His Finger) 출범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성국 목사)가 출판사 '히스핑거'(His Finger)를 신설하고 그 첫 출간 책으로 김성국 목사의 설교집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를 선보였다.



출판사 '히스핑거'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8:3),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8:6)의 성경말씀에 의거해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명명됐다.

본지의 '히스핑거' 출판사업은 선교적 차원의 사업 일환으로 출발했으며, 미주 뿐 아니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선교사, 평신도들의 '책 만들기'를 위해 최고의 실력과 최선의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LA: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시론
민경명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남은 여성 그리스도 복음...
뉴욕실버선교회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선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장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구절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발행인 칼럼 ●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멈춰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 날,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쉽게 볼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야 했다. 오랫동안 준비한 퍼레이드였기 때문이다. 뉴욕에선 매년 음력설을 맞이하면 한인들과 중국인들이 함께 퍼레이드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행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민자들이 삶의 현실에서 마주치는 거친 바람과도 같았기에 오히려 더욱 더 전의(戰意)가 고조(高潮)되었다. 그 날 다른 선택은 없었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다. 거친 바람이 불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바람 앞에 눕든지, 아예 바람에 꺾이든지, 바람을 헤치고 더 앞으로 나가든지, 그 실체를 보인 다.

36세의 젊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아내와 딸을 두고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폴 칼라니티. 그가 남긴 책 "숨결이 바람 될 때(When breath becomes air)"에 다음 같은 글귀가 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I can't go on),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I'll go on)." 죽어가는 자기 몸 때문에 자기의 환자가 있는 병실로 갈 수 없는 그가 기어코 다시 가고자 했던 그 병실. 결연(決然)한 그의 태도는 못 사람에게 숙연(肅然)함을 자아냈다. 역경(逆境)이 잠재우지 못한 사명감이었다.

세상 사람도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 해야 하겠는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바람, 제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주의 길을 가야 하고, 갈 수 있다.

내 손에 무엇이든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아무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남 탓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날 도와줄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손에 든 바람개비가 돌지 않는다고 울상 짓지 말라. 달리면 된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들고 뛴다 달리면 된다. 그러면 바람개비는 돌아가고 내가 가진 아이디어는 작동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 이여령 씨가 주창(主唱)한 "바람개비 원리"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적에 누구나 체득(體得)한 바람개비 이치(理致)를 나이 들어 적용 못한다면 누구 잘못이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거친 바람도 선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도 선하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필요하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7:14).

아~~바람이 분다. 오~~그 바람이 멈춘다. 바람이 있고 없음이 나를 바꿀 수 없다.

AI 기술 상용화 시기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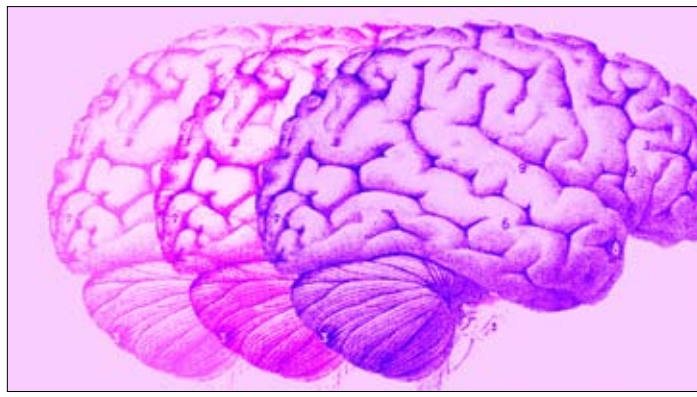
MIT, 2019년 당면할 AI의 6가지 위험 밝혀

세계를 지배하는 초인공지능(AI)의 전망에 대해 조바심이나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작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시가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적용되기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지를 분류하고 언어를 번역하는 유틸리티 같은 작업에서 뛰어났지만, 이 기술에 대한 과장된 포장으로 인해 인간만큼 영리한 기계를 만드는 것과는 아직도 한

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어왔다. 따라서 MIT는 2018년에 벌어진 AI와 관련된 6가지 논쟁을 통해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조차도 실수를 저지할 수 있고, 부주의하게 적용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Never mind killer robots-here are six real AI dangers to watch out for in 2019: Last year a string of controversies revealed a darker (and dumber) side to artificial intelligence).

1. 스스로 충돌하는 무인 자동차들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이나 실제 운전 중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 이후에, 아직까지는 충돌 사고와 같은 사고를 자율로 예방하기에는 아직 이르는 사실이 발견됐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 우버(Uber)와 같은 신생업체, 그리고 신생



AI가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감시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국민들의 일상에 배치하게 됐다. 또한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소셜 미디어에 사진들을 자동으로 태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 자유그룹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자율주행 자동차, 각국 선거서 시험대 오를 악성 챗봇 자동화 무기, 얼굴인식·딥페이크·왜곡데이터 편향성

기업의 대다수는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 이르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작년 애리조나에서 첫 번째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Waymo) 기업이 있을 정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자동차업체에서 마인더의 손으로 여기는 미래 역점 분야다. 그러나 웨이모의 기술조차도 제한적이며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마다 규제와 허용이 다르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것: 미국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규제 당국은 기술혁신을 저지할 것을 두려워해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행자와 인간 운전자들이 실험대상이 되는 데는 아직까지는 동의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19년에 또 다른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규제 당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2. 정치 조작 로봇들
지난 3월,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분석(Cambridge Analytica)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공유 실행을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뉴스와 정보가 나오게 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잘못

된 정보를 증폭시키고 건전한 논쟁을 약화시키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시민들을 격리시키는 데 조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또는 비디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AI 자체가 악의적인 콘텐츠를 발견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것: 주커버그의 약속은 아프리카 최대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또 2020년 미국선거 대권주자 경주도 시작됐는데, 이것이 악성 챗봇(malicious chatbots)을 포함해 AI에 의해 제공되는 새로운 종류의 잘못된 정보기술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3. 평화를 위한 알고리즘
작년에 AI 평화운동은 구글이 이미 공군에 무인 항공기(드론)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구글 직원들이 알게 되면서 시작했다. 직원들은 AI 지원을 통한 치명적인 무인 항공기 공격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을 공급하는 조치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에,

평화를 위해서만 알고리즘이 유용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응해 구글은 군사 무기지원계획(Project Maven)을 포기하고 AI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학계 및 관련 기업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 역시 자동화(자율주행)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군사적 사용은 탄력이 불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같은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것: 국방부가 AI 프로젝트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활동가들은 올해 예정된 일련의 UN 회의들에서 자동화 무기를 금지하는 원천적 금지 조약들이 출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4. 얼굴 인식, 국가 감시의 시작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가공할만한 방법이며, AI 훈련데이터의 편향성이 차별을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얼굴인식은 경찰 및 정부의 감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아마존은 이 기술을 미국의 이민국과 사법집행 기관에 판매하고 있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점: 얼굴인식기술은 차량 및 웹캠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사용자의 신원 뿐만 아니라 감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이에 대한 예비적인 규제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5.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작년에 "딥페이크(deepfake)" 비디오(인공지능의 영상 합성, 조작기술)가 급증하자 인공지능을 사용해 가짜 클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줬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 (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조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2월 28일

제출처 1. 우편 2. 이메일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kcch2019@gmail.com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미성대학교 제4대 총장 초빙공고

미성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총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총장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1.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능력 있는 분
 2. 미주 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3. 미주 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분, 혹은 미주 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Letter 2매 이내) 1부
 3. 대학 발전 및 운영계획서(Letter 10매 이내) 5부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보내실 곳
Rev. Sung Ho Cho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접수 마감
2019년 1월 21일(월) ~ 3월 16일(토)까지 도착 분

-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밀봉하여 송부 요망)
 2.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수 목사

부자 26명, '세계인구 절반' 의 자산 소유

뉴스위크, 옥스팜 보고서 '공익이나 개인의 부냐?' 보도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최근 발표한 '공익이나 개인의 부냐(Public Good or Private Wealth?)'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최고 부자 26명이 소유한 재산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세계인구의 절반)이 가진 총 자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총회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THE WORLD'S 26 RICHEST PEOPLE HAVE AS MUCH WEALTH AS THE POOREST 50 PERCENT OF HUMANITY, REPORT SAYS).

전 세계의 억만장자 2,200명은 지난해 부가 12%나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루 약 25억 달러, 연간 9000억 달러가 증가한 셈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위 50%의 전체 자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6명의 세계 최고 부자가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38억 명의 부를 합친 것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2017년엔 하위 50%의 전체 부와 맞먹는 재산을 소유한 부호가 43명, 2016년엔 61명이었다).

그 외에도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 수가 거의 2배로 늘었으며, 2017년 3월부터 1년간 이들에 한 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옥스팜은 엘리트 억만장자가 누리는 어마아마한 부의 사례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를 지목했다. 그의 순자산은 약 1120억 달러로 그 중 1%만 해도 인구 1억500만 명인 에티

오피아의 보건 예산과 맞먹는다.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오히려 수십 년 전보다 줄어,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 속에서 부유한 나라의 개인소득세 평균 최고세율은 1970년 62%에서 2013년에는 38%로 떨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이 주로 소비에 부과되면서 상위 10% 부유층이 하위 10%의 빈곤층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최빈층 10%의 소득대비 세율이 32%로, 최부유층 10%의 세율 21%보다 높았다. 영국도 최빈층 10%의 소득대비 세율이 49%로 최상위층 10%의 소득대비 세율 34%를 웃돌았다.

또 보고서는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역의 재산만 해도 7조6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재산에 세금만 제대로 매긴다면 한 해 1700억 달러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각국 정부가 부유세를 적극 도입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역외금

융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 해 동안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에 세금 0.5%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세계 2억6200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3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펜서 국장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며 "우리 세계엔 모두에게 삶의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부가 있다. 각국 정부는 부유층과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걷은 세금으로 서민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무료 공공 서비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60~70% 세율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억만장자 2,200명은 재산 12% 늘었지만 하위 50%는 11% 감소

옥스팜의 매튜 스펜서 홍보정책국장은 영국 신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빈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지난 25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옥스팜 보고서는 많은 국가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1만 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며, 부모가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가 약 2억6200만 명이다.

부의 불평등이 성별 간 격차도 부추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 세계 남성의 재산은 여성보다 50% 많고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23% 낮았다.

옥스팜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매일 각지에서 행해지는 수백만 시간의 여성 무급노동 위에 세워졌다고 양육, 노인·환자 부양, 요리, 청소, 식수·빨감 수집 등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여성이 행하는

녀 수백만 명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성은 출산 후 부실한 산후조리로 죽어간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에서 서민이 분노하며 좌절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옥스팜 총재는 밝혔다.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오히려 수십 년 전보다 줄어,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 속에서 부유한 나라의 개인소득세 평균 최고세율은 1970년 62%에서 2013년에는 38%로 떨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이 주로 소비에 부과되면서 상위 10% 부유층이 하위 10%의 빈곤층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최빈층 10%의 소득대비 세율이 32%로, 최부유층 10%의 세율 21%보다 높았다. 영국도 최빈층 10%의 소득대비 세율이 49%로 최상위층 10%의 소득대비 세율 34%를 웃돌았다.

또 보고서는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역의 재산만 해도 7조6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재산에 세금만 제대로 매긴다면 한 해 1700억 달러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각국 정부가 부유세를 적극 도입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역외금

그녀는 "1000만 달러 전액에 대해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의 정치인들은 그 뜻을 옹호하고 그녀를 비난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그 세제를 지지한다.

분석가들은 또 미국의 거부들이 수십 년 동안 정부로부터 세금우대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1960년대엔 40만 달러(현재의 약 3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상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70% 이상이였다. 그로부터 10년 전엔 그 세율이 90%를 넘어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인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과 기업으로 돌아갔다)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상위 1% 부자와 대기업만이 혜택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소득과 부의 거대한 불평등의 시기에 우리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도 무너지고 있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창조해야 한다."

시론 "왜 사랑해야 하는가?"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어떤 이방인이 랍비 힐렐을 만나서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이란 극히 짧은 순간이니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전부다. 나머지는 다 그 해석일 뿐이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모두 613개다. 그중에 긍정명령, 즉 하라는

것은 248개인데 이는 사람의 뼈마디 수이다. 부정명령, 즉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로 1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율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유대 랍비들은 1년 365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온 몸으로 살아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가르쳤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께 나아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는 신명기 6장 쉘마(들으라)장을 상기시키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의미다. 뜻을 원래의 의미가 이해, 지혜다. 그러므로 뜻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지성(知性)을 다하는 것이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과 모든 재물, 모든 은사를 다 드려서 사랑하라는 의미다. 또한 예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결국 예수는 전체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으며,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다. 1-4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은 대개 부정명령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긍정명령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또 다른 무거운 짐이다.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도 살기가 힘들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도 모자란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니? 이런 계명 자체만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또 하나의 짐을 더할 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짐을 더 얹는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답을 복음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자각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나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서 구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발뚱 일어나서 감사할 마음이다. 만 입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해도 늘 부족한 마음뿐이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벽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은 바로 구원을 받은 감격의 자리, 곧 갈보리 십자가다. 구원의 그 자리에 우뚝 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감동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돌아가신 옥한흠 목사가 생애 거의 말년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설교에서 그는 하루에 십 분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호소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가지 힘을 얻는다고 갈파하였다. 첫째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세상살이가 다 힘들다. 특히 이민생활은 힘들다. 이민생활 속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또한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더욱 힘든 노릇이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4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인생이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보람된 열매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삶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오래전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 한 번은 집사람이 교회에 있는 나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다. 그 이유는 옆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는 우리 집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만 더 세우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집사람은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나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곧장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옆집 사람을 찾아갔다. 그 집에서 집사람을 위협한 사람이 나오고 나는 그에게 데이비드라고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왜 여기다가 세우는 것이 불법인가를 물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세우는 것이 불법일리가 없다고 했다.

그 때에 그의 부인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우리가 차를 우리 집 드라이브 길에 세우면 자기차가 자기 집 주차장에서 나갈 때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좁은 길 건너로 바로 앞에 또 다른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웃이 되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가 막혀 빠지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나 다시는 경찰을 부르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고 친하게 지냈시다”라고 말

했다. 그도 역시 좋다고 하고는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다. 그가 법에도 맞지 않은 말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내 옆집 사람이 경찰을 받고 불렀다고 해도 경찰은 그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기도는 들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세심히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봉사는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봉사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얼마 전 식당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느끼게 하는 한 작은 경험을 하였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 집 식구들과 함께 한인 식당엘 갔었다. 그 식당의 웨이트레스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열심히 서비스를 해주었다. 배고팠던 우리 가족은 나오는 반찬을 있는 대로 미리 다 집어먹고 그 웨이트레스는 열심히 새로운 반찬을 날라다 주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날라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반찬그릇은 많아지고 나는 나의 밥그릇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반찬그릇 중에 몇 개를 다른 반찬집시들 위에 포개어 올려놓게 되었다. 그러자 그 웨이트레스가 허둥지둥 뛰어와서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렇게 놓으면 자리가 자기를 꾸중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밥그릇을 상 끝에 놓고 아슬아슬하게 식사를 해야 했다. 나는 그 때 참으로 묘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그 웨이트레스가 열심히 서비스한 의도가 손님인 나를 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기본이 좋지 않았었다. 그 웨이트레스는 자기가 사장으로부터 받은 평가만을 생각하며 손님인 나를 대했던 것이다.

그런 중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혹시 나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웨이트레스와 같지는 않았는가 하고 말이다. 마치 그 웨이트레스가 “손님은 불편해도 내가 사장님께 인정을 받을 때가 자 참여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드셔도 참아주세요” 하지 않았나 하고 말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외식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듯 목회자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에는 항상 사단이 파놓은 “자기 욕심”이라는 함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것은 누구의 영광과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를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는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교회)



예수님께서 세상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고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신 3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란 공적인 삶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고 이를 물리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보려면 바로 위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

기같이 임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 할 때 시야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 때에, 예수님이 첫 걸음을 시작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로 몰아내심
2천 년 전 예수님을 광야로

광야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4장 1-2절)

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를 쫓아내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거친 광야로 몰아내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예수님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신

곳입니다.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멀튼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착각 속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은 현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 속사람도 좋은 인격인 사람인 듯 착각하고 명예가 있으면 그만큼 인품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

합니다.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멀튼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착각 속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은 현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 속사람도 좋은 인격인 사람인 듯 착각하고 명예가 있으면 그만큼 인품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

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에 가면 다 깨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으면 누가 알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는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나 하나, 연약한 인간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도시 생활 속에서, 착각 속에서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나의 참 모습, 나의 진실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단계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실존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영적인 단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맡겨 드리려는 영적인 실존의 단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아래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계의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훈련시켜서 남은 세월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쓸쓸하고 삭막하고 눈물 섞인 광야생활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영광 받으시며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발견한 것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광야는 우리의 참 모습,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에 가면 다 깨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으면 누가 알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는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나 하나, 연약한 인간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도시 생활 속에서, 착각 속에서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나의 참 모습, 나의 진실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단계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실존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영적인 단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맡겨 드리려는 영적인 실존의 단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아래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계의

결과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황금을 찾습니다. 가끔은 그 황금을 얻고 기뻐합니다. 그 황금을 담기 위해 생수를 다 쏟아 버리고는 그 속에 황금을 넣고 길을 떠나지만 얼마 못가서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광야 인생길에서 진정한 생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면에서 계속〉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는 거룩을 실천할 힘을 얻는다. 이 최악된 세상에 경건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율란한 세상을 넘어서 수 없다.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나의 헬기조차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음을 깨닫게 되면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 셋째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먼저 희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예수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신이 한 알의 밀

알로 죽으심으로 본을 보이셨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이 세상이 변한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이시여 도우소서(So Help You(Me) God)' 미국 전통선서문구 삭제될 뻔

지난 1월말, 미국 하원과 NRC(Natural Resources Committee)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하원에서 새해에 첫째 결정할 내용으로 내놓은 정책들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선서문구를 대놓고 삭제하는 정책이어서 크리스천 국민들은 또 한 번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새롭게 민주당이 주류를 이루어 구성된 미 하원에서 법정이나 공식장소에서 증언하기 전에 맹세할때 말하는,

"Do You Swear to tell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이라는 문장에서 "So help you(me) God - 하나님이여 도우소서"에 대한 문장을 삭제하고 그 대신 "법적 처벌"이라는 문장으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공화당 전체의 맹렬한 비난이 온종일 쏟아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빚발치자 마침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NRC는 수요일에 그들의 초안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우소서-So, help you/me God"이라는 문구를 당장은 계속 유지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지만 또 언제 이런 시도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로 포장된 끝까지 않은 치열한 영적 전쟁

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위원회에서 애초에 제출했던 이 초안에는 또 다른 큰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 문제들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의 가치관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전체에서 "his or her"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그들(their)"이라고 성별구분이 없는 "무성별" 문구로 변경하고 있어 국가의 대표적인 당 중 하나가 미국 국민들을 향해 성별을 없애겠다고 확실하게 알리는 선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문서에는 "의장(Chairman)"에 대한 모든 인용구를 "의석(Chair)"만을 가리키도록 수정하고 있는데, "man"이라는 단어가 여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상징하고자 man이라는 글자를 빼는 것인데, 이런 민주당의 극적인 용어선택은 우리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요? 모든 것에는 선을 지켜야 밸런스(balance)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페미니즘" "젠더리즘"이라는 이름아래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Raul Grijalva(민주당-아리조나) 의원 대변인은 이에 대한 팩스(Fox) 뉴스의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우려스러운 시도에 공화당 지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Liz Cheney(공화당-와이오밍)가 팩스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이

루살람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지하는 것에 대한 삭제가 이미 건의된 바 있었습니다.

2012년 오바마 정권 당시 민주당의 공식 정강(Platform)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질서, 결혼의 의미,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에 대한 문구들을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로 대체시켰으며, 지금까지 민주당으로 등록을 하는 정치인들의 90% 이상이 그들의 정당을 따라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을 크리스천들은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So help you(me) God"은 민수기 30:2 인용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30:2)

윗 문장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을 설립한 선조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선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만든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시민과 나라를 섬기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2016년 미국 하원 안에 기독교가치관을 가진 정치리더들이 당선된 후 이들은 '성경은 선물'이라며 '국가 성경의 주(National Bible week)'를 기념한 바 있었는데, 2018년 새롭게 반기독교적 민주당 정당을 따르는 정치리더들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미국의 전통 선서 문구를 빼고자 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민주당 대 공화당의 싸움을 넘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법을 지켜나가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마치 "선"인 것처럼 위장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무리들을 막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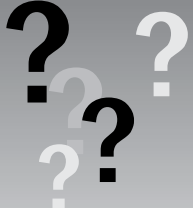
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2018년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서 추진시킨 첫 번째 정책 중 하나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위원회 절차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황당스럽지만, 절대 놀랍지 않다. 그들은 정말로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당이 되었음을 거듭 증명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처음이 아님

이번에 제안된 법적 초안에서의 황당한 시도는 사실 '민주당 정강(Democrat's Platform)'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로 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2012년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에서는 '하나님(God)'이란 단어를 인용하는 것과, 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미국 와서 교회 다닌 지 겨우 3년 밖에 안 되는 초신자 수준의 집사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에게 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산호세 장 집사

A: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27절에 나옵니다. 천지창조에서 놀라운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는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사숙고 의논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창 1:26). 이에 대해 헬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의 큰일"에서 인간은 천사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형상과 모양"이란 이 두 단어는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바 모양은 형상과 가장 근접하고 유사한 것을 보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이 두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1)신과 인간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유사성으로 봅니다. 2)사역상의 유사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듯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서

"형상과 모양"은 보완적...영적 인격적 면과 사역상 유사성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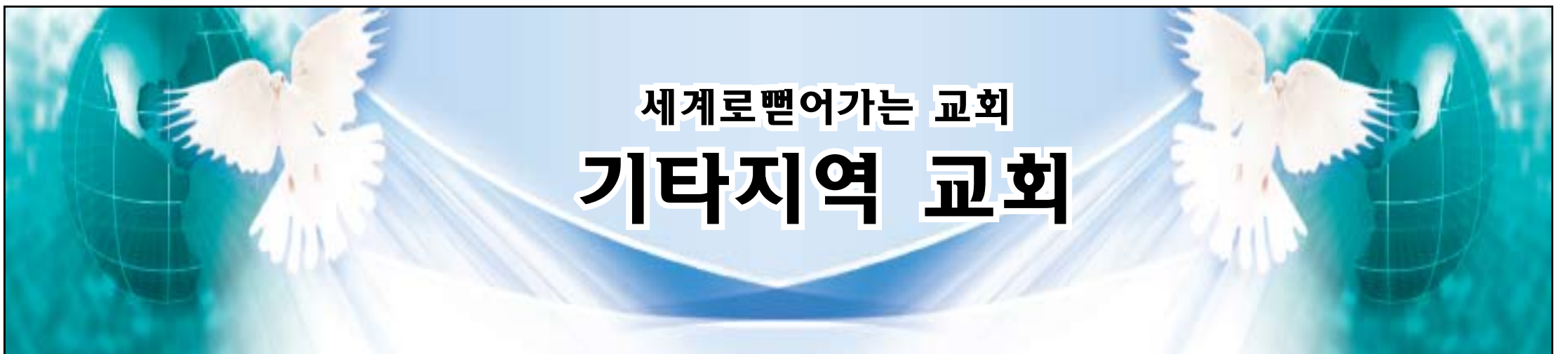
하나님과 사역의 유사성을 지닙니다.

몇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소개합니다. 총신의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질, 이것은 1)종교적 의미(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의와 거룩함과 지식(엡4:24, 골 3:10)을 포함하는데 인간의 범죄 후 그 성질은 파손되었고 형식만 남았다. 2)일반적 의미에서의 이성과 도덕성인데 이것들도 범죄함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사람의 이성은 분석과 종합 뿐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르며 진선미의 개념도 가진다. 그것은 모든 동물들의 이성을 지은(창2:19-20) 행위와 이와 같은 사고력의 작용이다. 그리고 도덕성은 그의 양심의 작용이다(롬2:15)"고 했습니다.

벌코프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1)인간의 혼, 또는 영, 즉 단순성, 영성, 불가시성, 불멸성과 같은 자질들 2)합리적인 인간의 신체적인 힘과 기능들, 즉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성과 의지 3)참된 지식, 의와 거룩과 지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 본성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순전성(엡4:24, 골3:10) 4)물질적인 실체가 아닌 불멸성을 공유하는 영혼의 적절한 기관으로서 동시에 하급 피조물을 지배하는 도구로서의 인간의 몸 5)땅에 대한 인간의 지배 등이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른바 원의(原義)와 동일시된다. 죄 때문에 상실될 수도 있고 또 상실된 것은 도적적 완전성이다"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자인 존 칼빈(John Calvin) 선생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파괴되었으나 중생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골 3:10, 엡4:23)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스킨너(Skinner) 박사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도덕성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도 어느 정도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상이 완전히 다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된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고 신앙인격이 점점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감으로 신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10: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회(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주일, 유년, 중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왕찬양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18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79-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4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00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후난(HUNANESE, 한족)



4천 2백만 이상의 후난 한족은 중국 내 민족 중 가장 큰 한족 다음으로 큰 집단이다. 그들은 주로 모택동(Mao Ze-dong)의 고향인 후난 지방에 거주하는데 이곳은 3월 공산주의 항쟁의 주 무대이기도 하였다. 또한 광저우 지방과 타이완에도 상당수의 후난 한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후난의 주요 방언인 치양(Xiang)어를 사용한다.

후난 한족은 외국세력에 맞선 오랜 저항의 역사로 유명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복음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 공산국가가 되기 전 중국에 살았던 선교사들은 외국의 영향에 대해 단호한 이 지방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후난 한족의 기독교인은 단 1.9%에 불과하다. 이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는 계속됐고 시골 지역에서 더욱 심했다. 기독교 박해는 문화혁명 기간에 최고조를 이루었고 잦은 체포와 구타, 심한 중상 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잦은 체포와 구타를 통한 위협은

오늘날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삶의 모습

중국은 오랜 역사동안 여러 정치적 격변과 불화를 겪어왔다.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해 나라를 단일화 했을 때 중국 전역에서는 찬동의 물결이 일어났다. 중국인으로서 또한 공산주의 환경 아래 살면서, 후난 한족은 오직 한명의 자녀만을 가질 수 있는 중국법에 복종해야 했다. 단 시골 농부의 첫째가 여아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산아제한법은 한족 사이에서 낙태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런 법률이 꼭 고통을 준 것만은 아니다. 다른 여러 법률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0년 급작스런 인구증가로 생겨난 대량 기아사태는 약 3천5백만 중국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었다.

후난 한족은 지방 수도 중

가장 대표적인 '장사(Changsha)'에 대다수가 거주한다. 이는 현대 도시의 중심이고 산업, 교육, 고속발달, 부의 중심지다. 정부가 그곳 사람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자유가 하락됐고 이 자유가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후난 지방의 날씨를 열대우림지역으로 4월에서 6월까지 폭우가 쏟아진다. 여름은 건조하고 온도가 화씨80도까지 올라간다. 겨울은 짧고 산악 지역만 낮은 온도를 보인다. 산과 언덕은 다른 지방 사람들이 찾을 만한 관광지이다. 양쯔강은 가장 중요한 강이고 지역의 접경을 이룬다.

산악과 언덕지대에는 주로 농촌생활을 하는 후난 한족들이 쌀, 밀, 차, 다른 과실과 야채들을 재배할 만한 비옥한

계곡을 찾아다닌다. 허나 후난 한족들 가운데 농사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점차 소비중심국가로 변해가면서 경공업과 중공업도 또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난 한족 중 적어도 75%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농경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성공의 기회를 쫓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모택동의 의복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구세대(舊世代)와 달리 서양의 의복스타일을 받아들인 젊은 세대는 서양의 사고방식에도 개방적이다. 공산주의 경제방식에 환멸을 느낀 젊은 층은 현재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기회들을 찾고 있다. 1989년 여름에 있었던 학생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해 후난의 수도 "장사(Changsha)"에는 대규모

로 학생 동요가 일어났다.

신앙

후난 한족은 공산주의이지만 여전히 중국문화 속에 뿌리 깊은 유교사상의 잔재가 있다. 또한 불교, 도교, 이슬람, 기타 다른 민속 종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후난 한족의 영적인 필요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성장을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 사실상 수천만 후난 한족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통해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며 복음에 더욱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낙태허용 완화법 반대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아이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밝힌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워싱턴DC의 워싱턴힐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생명의 기적과 창조와 장엄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자"고 말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공의를 추구하는 용기와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갖게 되길 바란다"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생명이 신성하고 모든 영혼은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태어났건 배 속에 있건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가 추진 중인 산모의 낙태 수술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리필법(Repeal Act)'에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개국에서 3500여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매년 2월 세계 각국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과 미연방 상하원 및 정부 요인들이 모이는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953년 시작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은 모두 이 행사에 참석해왔다.

벌써 2020 대선 모드...워런 출사표 vs 트럼프 유세 돌입

미국 정계가 일찌감치 2020년 대선 준비 모드에 들어갔다.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텍사스주 국경도시에서 올해 첫 선거 유세를 벌이며 재선 캠페인에 돌입한다.

워런 의원은 보스턴 북부 로런스에서 "모두를 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그는 연설에서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와 우리의 삶을 위한 싸움이며, 꿈이 이루어지는 미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인 워런 의

원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주로 언급했다. 그는 "중산층 쥐어짜기(middle-class squeeze)"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수백만 가족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모두에게 너무 적은 기회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연설 장소인 로런스는 여성과 이민자들이 이끄는 노동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다. 워런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다.

워런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그는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도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는 정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며 "미국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현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종차별적 발언을 할 때마다 "역겹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적인 워런 의원의 출마 선언에 곧바로 반응했다. 그는 "오늘 내가 종종 '포카혼타스'라고 불렀던 워런이 대선 레이스에 합류했다"며 "그가 미국의 첫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대선 후보에 출마할지 지켜보자. 선거 유세에서 보자. 리즈(Liz) 엘리자베스의 줄임말!"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런 의원의 원주민 혈통을 의심하며 '가짜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해 왔다. 이 때문에 워런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원주민 후손이 입증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1일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집회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도시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국경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폭력범죄율이 높은 엘패소는 미국 내 가장 위험한 도시였지만, 강력한 국경장벽이 세워진 후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가 국경장벽 이슈를 계속 부각하는 이유는 반(反)이민 정책을 강조했던 국정연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 베토 오루크 전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장소 부근에서 국경장벽 건설 반대 시위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오루크 전 의원은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위협하다는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라며 "진실을 위한 행진(March for Truth)"이라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맞붙은 오루크 전 의원은 2020년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의 잠룡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7년간 샌더스 의원에게 소액 후원한 사람은 210만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후원금 모금사이트 액트블루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민주당 성향 후보자에 대한 소액 후원자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 톰스 게버드 하원의원 등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워드 슈츠 전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담판 앞둔 트럼프...北과는 비핵화·국내선 회의론

2차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북한과는 치열한 비핵화 수싸움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선 꺼지지 않는 회의론과 기싸움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 내 회의론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회의론은 잠들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집착하는 이유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까지 잡혔지만 미국 의회 내부의 격정스러운 시선은 여전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핵화 회의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10일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밋 롬니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내가 알기론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해 밝힌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성공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구체적일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다 협조적으로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벽예산 협상 잠정 타결...트럼프 수용 여부 관건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첫 예산(임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 규모에는 한참 못미쳐 첫 예산 재연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에서 열린 2020년 재선 캠페인에서 "국경장벽은 생명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장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방 상·하원 협의회는 국경장벽 예산 협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예산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나흘 앞두고 잠정 타결을 이룬 것이다.

미 언론들은 합의 사항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를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여유 가능한 불법 이민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는 협상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13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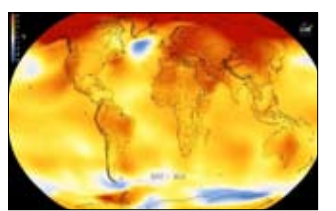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양원 협의회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협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들었다"며 "어쨌든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단 의회 협상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엘패소의 카운티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주제로 올해 첫 선거 유세를 벌였다. 그는 "미국에 필요한 장벽을 지어야 한다"며 "텍사스주 리오그란데에도 크고 아름다운 장벽이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엘패소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지만, 강력한 장벽이 세워지면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고도 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국경장벽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장벽을 지어라(Build the Wall)" 장벽을 완공하라(Finish the Wall)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했다.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베토 오루크 전 하원의원은 유세장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오루크 전 의원은 집회 '진실을 위한 행진(March for Truth)'에서 "국경장벽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끝내버린다"며 "엘패소는 장벽 때문이 아니라, 장벽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엘패소는 오루크 전 의원의 고향이다.

"2018년, 사상 4번째 뜨거운 해"

2018년 전 세계 평균기온이 기후 관측 사상 4번째로 높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해보다 기온이 높았던 해는 2015-2017년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해양대기청(NOAA)이 6일 발표한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14.69도를 기록해 20세기 전체 평균보다 무려 0.79도나 높았다.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후 4번째 높은 수치다.

심각한 것은 139년의 관측 기간 동안 평균기온 Top5가 최근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이며 2017년과 2015년, 2018년 순이다. NOAA는 보고서에서 "유럽과 뉴질랜드, 중동 일부와 러시아의 경우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남태평양 일부와 대서양 북부와 남부의 해수면 온도 역시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의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최근 4년간의 지구온난화는 매우 예외적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는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캘리포니아 지역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 인도에서도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극지방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대대양이 닳아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기상청은 향후 5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중세교회의 상황 속에서

대중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출발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부여받았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얻는 자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만일 말거진 사명에는 충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관심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세속적인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

스콜라신학의 등장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고에 틀을 갖춘 신학이 발전할수록,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한 신학이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무미건조하고 사변적인 신학의 발전에 매료될수록 교회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지는 영적생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교회 안에서 자성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1216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미니크(Dominic Félix de Guzman, 1170-1221)가 도미니크수도회는 창설한 것이다. 도미니크는 복음전파에 힘을 쓰지 않고 무기력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이단과 회교도의 회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도미니크수도회는 설교를 통한 전도활동을 주된 사역으로 삼았다.

설교를 통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몰두하는 수도사들이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올바른 설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바른 지식을 토대로 설교하는 일을 마땅히 여기게 된 수도사들은 성경연구에 정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도미니크수도회는 중세신학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13세기 중세교회는 1230년에 마감된 십자군운동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명목적으로 앞세워서 비 성경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십자군들로 뿔뿔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나아가서 십자군으로 지원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수가 엄청 늘어난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과 나

중세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교회가 관심을 가졌어야 할 부분

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독특한 영적관계를 독특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초대교회에서 출발한 수도원은 전통적으로 개인 경건에 가장 중점을 두어왔다. 그런데 설교를 통한 전도활동을 설립목적으로 삼았던 도미니크수도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8)란 도미니크수도회 출신 수도사 등장하여 전과 다른 새로운 신학적 접근방

신플라톤적 사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본질적으로 신비주의의 틀 안에서 발전된 신학을 주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의 독특한 신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 아닌 '하나님과 나'의 또는 '일치'이다. 에크하르트가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 됨'에 관심을 쏟았던 것은 그가 설교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녀원에 속한 수녀들의 영적 보살핌에 대

결과이지만, 피조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합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다. 도리어 이미 창조와 함께 인간의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비록 하나님이 항상 인간의 영혼에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결코 그와 일치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성으로 하나님의 원천에 다가

지성과 소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순이란 것이다. 또한 자신만의 이익과 정서적 만족에 안주하려는 이기심을 지적하였다. 나아가서 창조된 세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에크하르트는 자신이 열거한 모든 문제의 근본을 '아집'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영적 문제의 뿌리를 자기 자신에 집착한 결과 본래 진정한 자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가능한 회복된 자아를 위한 방법으로, '버리고 떠남'이란 신비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버리고 떠남'은 '잘라내다'라는 중세 독일어 Abgeschiedenheit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먼저 자신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 자기 집착을 포기하고 비위서 텅 빈 마음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처녀의 경지'라고 설명하였다. 이 상태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즉 인간의 욕망이나 아집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해 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돌파'이다. 마치 알갱이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껍질이 깨져야 하듯,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처소인 영혼의 근저로 진입한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가 제시하는 성경구절은,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이다.

이단적 신비주의

예상대로 에크하르트는 교회법정에 고소당하였다. 그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1328년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교황 요한 22세는 자신이 1329년에 발표한 교서에서 17개 항목은 분명하게 이단적이며 11개 항목은 이단성이 농후한 것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의 사상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의 사상은 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가 비서경적인 신비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은 것이다.

이 시대의 영적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교회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온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욕이 앞선다고 해도 이단적 가르침을 허용할 수는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시대 또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이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2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법을 시도하였다. 에크하르트는 고대 근방 호호하임에서 출생하여 15살에 에르푸르트에 소재한 도미니크수도회에 입단하였다. 명성을 얻은 그는, 일찍부터 에르푸르트 수도원장과 튀링겐 교구장에 임명받았으며, 파리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303년에는 사소니 지방의 도미니크수도회 교구장을 맡아 사역하기도 하였다.

한 고민도 큰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다.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신학은 광신적인 성향을 띤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드러난 중요 주제를 자신이 세운 신비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풀어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가야 한다. 이 가능성은 창조된 인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다. 이와 같이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먼 신학을 동반하였다. 그는 훌륭한 설교자였으며 신실한 목회자였다. 당연히 자신이 영적으로 돌보던 자들에게 드러난 자명한 영적 문제를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결과 동시에 교회로부터

도미니크수도회 에크하르트의 '버리고 떠남' 신비개념이 이단으로 흘러 교회 영적문제 지적, 해결 의욕 앞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 모색해야

그러므로 에크하르트는 이미 보편화된 스콜라철학의 방법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철학, 나아가서 교부들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그가 다른 수도사들과 달랐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 속에 시작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시하는 신비주의 신학을 소개하였다.

그 당시 교회는 물질적 세계에 대한 이성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매료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에크하르트는 본질적으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그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과의 합일은 철저한 자기 포기를 통하여 가능하고, 이때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사상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옹호하던 신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크하르트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스콜라신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매우 생소한 개념을 주장한 것이다.

에크하르트가 인간이 하나님과 합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이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버리고 떠나기

에크하르트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 하였던 것은 자신의 주장이 그 당시 영적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발견한 문제란 수도사들마저 자아에 사로잡혀서 외적인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속마음은 극히 속화되었지만, 오직 겉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며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이 태어난 원래 모습은 가난한 것인데,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others.

리더십 코멘터리 (8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Dress For Success

누가 성공한 리더인가?

당신은 성공한 리더인가? 성공한 리더의 기준은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 탁월한 실적을 올린 CEO? 조직에 변화를 이끌어낸 리더? 사람마다 리더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 그러나 성공한 리더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성공한 리더의 주변에는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리더의 측정 기준은 그가 어떤 업적,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 보다는 결과를 얻기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주변의 수많은 도전과 공

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 중의 하나는 겸손이다. 꿈이 사라지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다른 꿈을 꾸어라.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사역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각자 자신만의 경주를 하며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면 된다. 겸손의 예복을 입고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리더가 되라.

성실의 예복을 입어라

성실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실한 리더 주

도 패한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준다. 비전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모하면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손짓을 한다. 비전의 예복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하신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영적성장의 4가지 솔루션

리더의 영적성장 과정은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 걸음을 전진했다 가도 어느새 한 걸음 후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한 영적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①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 인간의 결점들을 제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를 망각하는 리더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②과정을 중시하라. 우리는 너무 서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계들을 너무 빨리 통과하려고 하며, 어려운 단계는 아예 건너뛰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급함이 실패한 리더를 만든다. ③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

겸손, 성실, 비전의 예복 입고 4가지 영적성장 솔루션 이뤄야

평가목록 H(Hurting)E(Exhausted)A(Angry)R(Resent)T(Tense) 작성 점검

격을 극복했다. 그 결과 그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은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혼자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자신과 함께 위대한 복음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언급한다. 디모데, 누가, 실라, 바나바,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 디도 등이 그들이었다. 바울의 위대한 성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시대를 앞서간 바울의 영향력으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형성되었다.

바울은 복음전파의 비전을 갖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것을 실천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겸손의 예복, 성실의 예복, 비전의 예복을 갖추고 새 시대에 맞는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겸손의 예복을 입어라

겸손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보신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잘 아신다. 우

변에는 성실한 추종자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꿔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실함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힘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부정적인 생각을 삼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실한 행동을 해야 한다.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에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실의 예복을 입고 최선의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되라.

비전의 예복을 입어라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대로 자신을 생각하기가 쉽다. 비전은 뜬 구름처럼 말로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비전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비전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작은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대수준은 훨씬 방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이상의 것을 예비하신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장벽을 깨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은 현실에서

다. 리더로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멘토와 함께 해야 한다. ④교만은 치명적인 병이다. 고래의 교만을 기억하라. 고래가 가장 높이 뛰어올라 물을 내뿜으며 자랑 할 때가 어부의 작살을 맞는 순간이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에 빠뜨린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리더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리더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라. 자기 평가목록을 작성하여 점검하라. 자신의 마음인 HEART를 점검하라. H-아픈지(Hurting), E-지쳤는지(Exhausted), A-화가 났는지(Angry), R-원망하고 있는지(Resent), T-긴장도(Tense)는 어떤지를 점검하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는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리더의 바쁜 생활은 영적 회복과 성장을 방해한다. 삶의 속도를 충분히 늦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은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며, 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임을 명심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완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더 행복한 것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싸움은 우리 영이 더 행복하면 영이 항상 이기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완포의 삶'(완전포기)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이 '완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과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 '완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입증돼야 진짜 실력이라. 그 열매란 주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는가 아닐까. 그 열매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의 소원이 점점 달라져가는 것이리라.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찬송이 삶의 실재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덧 '완포의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용광로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렘2:13)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일 게다. 내 생각은 다 터진 웅덩이요 밑 빠진 독인데 말이다.

그렇다. 마귀가 타락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산다면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수 병에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마신만큼 수돗물을 부으면 그 물은 더 이상 생수가 아니리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완포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그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시는 완포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동방 다 주교 가셨다.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주님을 닮기 위한 싸움이라. 그래서 주님이 주고 가신 그 모든 성품과 은사와 권세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완포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리라.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밀밭에서 사랑을 주는 자로 우뚝 서 있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완포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리라.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 때문에 다른 사사로운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리라.

changsam1020@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한류기도회: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3부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원찬양: 오전 10:00 화, 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은사)예배: 오후 5: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30분) 주일2부 오후 1:45(30분) 주일3부 오후 1:45(30분) 청년예배: 오후 3:12(3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은사)기도: 매일(목) 오후 7: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일(은사)기도: 매일(목) 오후 7:3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목회서신

참된 그리스도인(Real christian)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기름도 참 기름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치가 있습니다. 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 나엘을 처음 만나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참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 주님은 참된 제자 곧 참된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는 말씀 일 것입니다. 사람들도 참된 그리스도인

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위로 받고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가난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소위 엘리트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신자가 아닐지라도 진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킹'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에만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유식하던 무식하던 관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런 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환경적 목사가님에 남한산성에 게시 때에 일단의 젊은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목회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에 그들은 "목사님

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교인이 되세요"라고 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가치가 절하되고 교회 본래의 거룩함의 빛을 훼손당하는 면이 있는 듯합니다. 악한 사탄의 줄게들은 때를 만난 듯 교회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 의식이 없는 교인들과 목사님들까지 그런 놀음에 덩달아 교회를 빛나게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혹 세상 사탄의 줄게들은 교회의 거룩성과 존엄성을 훼손할지라도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교회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사람들을 더듬어 찾는 중에 두 분의 그리스도인이 생각나는 데 놀랍게

도 그 중 한 사람은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여 성도 중에 시 장터에서 호떡을 구워 파시던 가난한 여 집사님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힘겨운 호떡장사를 하지만 신실한 인격과 성실한 교회생활과 주변의 칭찬과 아주 좋은 평판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전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한 분은 제 논문을 지도하여주신 은준관 교수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배우며 지도를 받으면서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신사적이고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깨끗함 관대함 경건함 성실함 그리고 예수님의 뉘새를 내시던 그분의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교수님들에게서 느끼지 못하였던 주님의 참 제자 됨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이웃들에게도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들에게도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갈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열매가 많아 이웃에게도 교회에도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앞두고 있는 UMC 한인총회 임원들 사진 오른쪽부터 정영희 목사(결핵연회), 류재덕 목사(UMC한인총회장), 제임스 강(결핵연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인총회 내 한인교회연합회 결성기로 UMC특별총회 앞두고 한인총회 임원 기자회견

연합감리교회(UMC) 특별총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동성에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이번 총회를 위해 전통적인 플랜, 하나의 교회 플랜, 연대적인 플랜 등 3가지 플랜이 상정된바 있다. 이 3가지 플랜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연합감리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한인총회의 류재덕 총회장(벨리연합감리교회)을 비롯해 제임스 강 UMC 연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정영희 한인 코커스 부회장(드림교회)이 강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총회 입장을 설명했다.

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3개의 총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러자면 교단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건 총회에서 2/3의 찬성, 그리고 각 연회에서도 2/3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가 있어 실제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플랜이라고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류 목사는 "원처치 플랜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동성에 찬성과 반대를 포함해 어떤 입장이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도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플랜이라고 한다"며 "원처치 플랜은 동성에 목사안수는 연회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모든 개체 교회에 결정권한을 주는 것이다. 목사가 동성결혼을 주례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도 목사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결혼의 정의만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양하다. 따라서 총회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류재덕 총회장은 "현재 나와 있는 세 가지 안은 각각의 안이 해결코자 하는 목표들이 있다. 첫째는 유니티(Unity)다. 교단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공존하자는 가치, 즉 Honor to Diversity, 셋째는 교단 내에서 성정체성과 관련된 논쟁과 갈등을 마무리하자는 점이다"라며 "이 세 가지 목표들 중, 원처치 플랜은 첫째 유니티, 곧 교단분열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두 번째,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존중함으로써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류 목사는 앞으로 한인총회 내에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연합회 결성은 한인총회 내 타인종 목회자그룹(한인목사가 한인교회가 아닌 다른 인종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목회자 그룹)들 중 친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다. 총회결정 이전 혹은 이후 한인총회가 반동성애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친동성애 성향의 한인 목회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지기에 총회 이외의 연합회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따라서 한인교회연합회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오픈포럼에서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연합회"(가칭)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 연합회가 만약 원처치 플랜이 통과될 경우 전체 한인교회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하게 될 것이다.

원처치 플랜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인총회와 한인교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명할 계획이다.

류재덕 목사는 "특별총회에서는 3개 안 중 하나가 채택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교단이 깨어지지 않고 성숙된 교회와 교단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첫날 전요섭 성결대학교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기술혁명으로 비인간화 우려

월드미션대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전요섭, 정재현 교수 강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학교설립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본교 채플실에서 개최했다. 5일 오후 7시에 열린 첫날 학술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독교상'이라는 주제로 전요섭 교수(성결대 기독교상담학,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회장)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했다.

전요섭 교수는 "3-4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할지 몰랐으며 변화의 주기는 더 빨라지게 된다. 공상과학영화

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편리성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비인간화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향후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는 자녀교육과 건설 산업, 경영마케팅, 섬유의료산업, 미디어, 정보통신 등등 사회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신학에서도 다뤄야 한다"며 "하지만 목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는 안타깝게도 미미한 편"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영적발달의 동기는 항상 고난과 함께 개발되었다"며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것은 죄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태를 경험하게 되면 좀더 편한 걸 찾게 된다. 돌아갈 세상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키고 생각 안 나게 하는 것이 나태다. 나태는 가장 사탄의 고등전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도를 비롯한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 마땅한 도전이다. 기도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단절된 것을 영적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공감하게 해 영성을 회복해야 영적인 생명력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과 14일 정재현 교수(연세대학교 종교철학, 한국종교학회 종교철학분과위원장)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에콰도르, 콜롬비아 방문...과테말라도

글로벌여목회 중남미 어머니기도회 시작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글로벌여목회, 회장 전희수 목사) 주요 사역인 어머니기도회 중남미에서도 시작돼 니카라과를 시작으로 과테말라도 지부를 결성했으며 최근 2개 지역을 추가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와 사무총장 권캐더린 목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했다.

선교단은 지난 29일 엘살바도르를 방문, 엘살바도르 뽀프레리오스 선교센터(황영진 선교사)에서 "미 마드레 케 에스 타 오란도 에스 헬리스"(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진행했다. 이날 관계대리인 목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세울 데 라 오라션)"(시65: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관계대리인 목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세울 데 라 오라션)"(시65: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어머니기도회 회장으로 황은숙 선교사를 임명했다.

황은숙 선교사는 "이 작고 열악한 산마을 뽀프레리오스에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2월 2일에는 콜롬비아 아구아피다 선교센터(김혜정 선교사)에서 어머니기도회 출범에 배가 드러졌다.

이날 설교는 전희수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삼상1:21-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혜정 선교사를 콜롬비아어머니기도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3일 주일에는 김혜정 선교사가 개척한 아구아피다 바울선교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 및 전도사 임직식이 열렸다.

글로벌여목회에서는 구스타보와 디델사 2명의 전도사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혜정 선교사는 "콜롬비아 아구아피다에서 시작된 어머니기도회가 콜롬비아 치아와 멜갈, 또 새로운 인디안 사역이에도 어머니기도회가 세워져 사랑을 믿을 위에 세우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역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한편 2월 2일 과테말라 셀라 사랑의이삭교회에서 박윤정 선교사 인도로 과테말라어머니기도회가 시작됐다.

셀라 지역 산마을은 해발 2,940미터 산중턱에 소재한 마을로, 주민들은 97% 이상이 카톨릭이며 36년간 내전으로 인해 산마을로 숨어들었던 주민들은 대중교통도 없이 아직도 폐쇄적 삶을 살고 있다.

박윤정 선교사는 이런 소망 없는 산마을에 어머니기도회를 시작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어머니들과 찬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어머니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과 후원을 해준 글로벌여목회에게 감사를 전했다.

어머니기도회는 매월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진행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통일전략연구회 주최 통일전략포럼 개최

통일전략연구회가 주최한 통일전략포럼이 지난 2월 4일 오후 5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보수 쪽에선 권성주 자국보수석 부회장, 남가주한국에비역이독군인회 회장인 김희창 박사,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

구소 대표 김용제 박사, 건국대 교수였던 전 패시픽스테이트대 총장이 패널로 초청됐다. 진보 측에서 주관한 통일전략연구회 이사장 광태환 박사, 이승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고, 최광철 한반도포럼 대표가 인사했다. 포럼이 진행된 3시간 동안 한반도 문제, 미국과 북한 회담

과 그 이후에 관해 양측 간에 열띤 토론을 있었다. (기사제공: 통일전략연구회)



엘살바도르 어머니기도회 첫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콜롬비아 어머니기도회 첫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대학진학세미나

뉴욕교협 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대표 황영송 목사)가 2월 16일(토) 오전 10시 뉴욕교협 청소년센터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진학 세미나를 연다. SAT와 ACT의 개념과 준비방법, 현재 대학진학 추세와 경향, 학교와 전공별 진학을 위한 학교성적 관리, 봉사활동 등 진학서류 준비, 학자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강사는 노준건 교육과미래 대표, 연방세무사.

▲문의: (718)279-1313 김준현 목사, 이메일 admin@ay-cny.us

'제시유 클래식 색소폰 콘서트'

뉴욕교협 초청 신년음악회 2019 '제시유 클래식 색소폰 콘서트'가 2월 24일(주) 오후 5시 뉴욕제시유교회(이지용 목사)에서 열린다. 스페셜 게스트로 김태군 성악가, 바이올린 유안나, 피아노 강주희 씨가 출연한다.

▲문의: (516)520-2004, (817)693-2763

EM 사역자 청빙

캐나다 토론토 가든교회에서 EM 교역자를 청빙한다. 담당파트는 EM Adult(1명), EM youth(2명).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으로 KAPC 교단 소속 및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최근 사진 첨부, 본인 및 가족)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 증명서 △신앙고백과 목회비전 및 계획서 △목회자 2인의 추천서(추천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최근 6개월내 설교영상, CD 혹은 링크. 우편(ATTN: 정난영 전도사,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Canada)이나 웹사이트(www.Torontogarden.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416)490-9060.

퀸즈한인교회 찬양간증집회

마커스 워십 예배인도자 심종호 & 퀸즈한인교회 청년예배팀이 함께 하는 찬양간증집회가 2월 23일(토) 오후 7시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린다. 하루 전인 22일 오후 8시에는 찬양예배가 열린다.

▲문의: (718)672-1150

마바울 목사 모친 별세

퀸즈성령강림교회 마바울 목사의 모친 김응남 권사가 2월 7일 오후 2시 후러싱 자택에서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뉴욕목사회는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2월 8일 저녁 7시 중앙장외사에서 천국환송예배 부고를 보냈다. 발인예배는 11일 오전 9시 30분, 하관예배는 오전 11시30분에 드려졌다.

▲문의: (718)309-0549



김성국 목사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복사인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날개 치며 올라가는 손 되자"

본지 사장 이취임식 보고 및 출판감사예배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김성국 목사) 이취임식 보고 및 출판감사예배가 지난 10일 오후 3시45분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지난 1월 26일 LA에서 열린 본지 사장 이취임식에 대한 보고와 함께 발행인 김성국 목사의 저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복사인회가 있었다.

예배는 정성호 장로 사회로 기도 윤석현 집사, 성경봉독 차동미 권사, 찬양 연합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이취임식 보고영상, 화답송 글로리아 싱어즈, 찬송과 헌금 이단비(오보예) 오재혁(바이올린), 감사패 증정(이임 장영춘 목사에게), 출판진행보고 정해성 집사, 광고 남형욱 장로,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요셉'을 이야기하면 장영춘 목사(영어이름 요셉)가 생각난다며 장 목사의 꿈과 신앙을 회고했다. 또 본지 부설 히스핑거 출판사의 출발을 알렸다.

김 목사는 "날개를 가진 손"(겔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에스겔의 비전같이, 손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듯하게 품기도 하고 날개 치며 올라감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문, 책, 교회가 되도록 후대에도 남기며 한 방향으로 한 꺾다를 향해 일치단결해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히스핑거 출판사의 첫 출판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를 책임편집한 정해성 집사는 출판과정을 보고하고 "퀸즈장로교회는 지금까지 문서선교에 앞장 서왔다"며 "이번 출판사 등록이 새로운 문화출판사역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사명을 갖고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춘 목사는 이날 참석하지 못해 허경화 장로가 대신 감사패를 받아 전달했다.

한편 예배 후에는 로비에서 김성국 목사 복사인회가 열렸다.

김 목사는 이날 "신문과 책, 그리고 성경"이라는 감사의 글에서 초등학교 때 부친이 50권짜리 어린이 문고전집을 사준 것을 언급하고 그 이후 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밝히며 "이 땅의 모든 신문과 책은 성경의 빛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히스핑거의 책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역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동부지방회 회장 황유선 목사

제42회 지방회, '미주성결교회 50주년사' 준비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가 2월 4일과 5일 뉴욕소망성결교회(황하균 목사)에서 제42회 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에 황유선 목사를 선임했다. 첫날 임원 선거를 통해 한 단계씩 상승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황유선 목사(버팔로 은혜로교회) △부회장 임용순 목사(뉴욕은누리교회), 조대위 장로 △서기 이상원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 △회계 이규연 목사(주동행교회).

동부지방회는 지속적으로 차세대인 EM 사역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수정교회 이사무엘 전도사에게 전달했다.

동부지방회는 뉴욕 감찰내 14개 교회, 보스턴 감찰내 6개 교회 등 20교회로 구성돼 있다. 지난 1년 동안 동부지방회 소속 교회 통폐합 및 개척, 목회자의 사역지 변경 등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뉴욕은누리교회: 김주동

목사 사임, 임용순 목사 취임 △웨스트포드한인교회: 임용순 목사 사임, 신석준 목사 부임 △보스턴성결교회 이규연 목사: 뉴욕 주동행교회 개척 △보스턴성결교회와 보스턴소망교회가 보스턴성결교회로 통합, 소망교회 담임 전석구 목사 취임.

2018년 감사 및 재정은 114,211달러로 보고됐다.

미주성결교회는 50주년을 앞두고 '미주성결교회 50주년사'를 출판하기로 했다. 이에 출판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석진 목사, 이대우 목사를 출판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 이의철 목사가 참석해 지방회와 교회와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신학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주성결신학대학교는 뉴저지 리지필드에 소재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동부지방회 제42회 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가 9일 목양장로교회에서 구정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라"

뉴욕장로연합회 구정 감사예배

제 9회기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지난 2월 9일(토) 오후 6시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에서 구정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사회 배상규 장로, 대표기도 김재관 장로, 성경봉독 김요한 장로, 설교 송병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창5:21-24)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둘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며 살아가는 행복한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통성기도는 박성범 장로의 인도로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본 교회 목양장로교회를 위하여 △장로연합회를 위하여 △회장 김영호 장로의 건강을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어서 민재기 장로의 헌금기도, 장로 4중창(우화선, 김재관, 송윤섭, 손성대), 회장 김영호 장로의 인사, 신승용 장로의 광고, 송병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곧이어 김상태 목사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저녁식사를 나누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패밀리터치, 가족사랑 전하기 교육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에서 그동안 자녀양육 프로그램 수강한 부모들이 모여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가족에게 특별한 사랑 전하기' 주제로 교육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숙 원장은 발렌타인데이

이를 축하하는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모임은 지금까지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엄마들 및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교육적 주제로 강의를 듣는 '좋은 엄마들의 모임'으로 유지되고 있다.

좋은엄마들의모임은 격월로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참석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지난 10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청소년/청년위한 직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청년위한 직업포럼 140명 참석

AYC, YWCA of Queens, CMP 공동주최

지난 2월 10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한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직업포럼(Career Forum)이 뉴욕교협청소년센터(AYC), YWCA of Queens, 그리고 CMP 공동주최로 14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담임목사의 지도 후 시작돼 Kadian Outar(DCAS)는 뉴욕시의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했으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

이어 퀸즈보로 예산국장인 리처드 리는 준 법률가에서 현직 예산국장으로서의 과정과 공영기관에서 종사하게 된 계기를 나눴고, 라정미(Megan Rha) 변호사는 10년 동안 전직 검찰로서의 공직생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눴다. 또한, 학생들에게 당부하길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주어지면 인턴십 혹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을 성장시키라고 강조했다.

P.S. 376Q 퀸즈 한인 최초 교장선생인 클라라강은 본인의 삶과 경험, 초등학교, 교감을 거쳐 그리고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학업능력을 중시했던 교육에서 지금은 관계를 통한 교우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리더십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에 강사들은 친절하게 답했다.

직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CMP의 Jae Kim(646-436-7671)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패밀리터치 주최 자녀양육 프로그램 수강 엄마들의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센터교회 임직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와 순서말은 이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기동 같은 일꾼으로 담임목사와 동역하라

뉴욕센터교회 장로, 집사, 권사 22명 임직예배

뉴욕센터교회(김재열 목사)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장로, 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임직식에서는 시무장로 6명(박덕수, 박요한, 서명환, 송피너, 신준호, 이재광)과 명예장로 1명(손건일), 안수집사 5명(강태우, 김성문, 유성열, 최영식, 한상준), 그리고 시무권사 10명(고경화, 김정희, 박남숙, 박정인, 이근자, 이성숙, 이영미, 장은하, 조영란, 한해경) 등 총 22명이 임직했다.

김재열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조덕남 목사(락크랜드새교회) 기도후 김원광 목사(중계총성교회)가 설교했으며 이어 서약/임직, 안수기도, 공포, 권면 한재홍 목사(임직자들에게), 이재택 목사(교우들에게), 축사 김경렬 목사, 기념패 증정, 답사 송피너 장로, 고아고 이형근 장로,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원광 목사는 "기동 같은 일꾼"(갈2:9)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기동이 주는 신뢰감'으로 임직자의 중요성을 정의하며 "첫째 기동은 떠받치고

있다, 둘째 기동은 들리지 않는다, 셋째 기동은 아래에 위치해 있다(섬김), 넷째 기동은 여러 개가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야만 유지된다, 다섯째 기동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동과 같은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열 목사는 임직자들을 안수하며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임직한 종들에게 기쁨 부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 교우들의 덕망과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담임목사와 동역하며 밖으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기도했다.

피터송 장로는 답사를 통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더욱 겸손한 임직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며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께 지혜를 구해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교회 시대적 사명 다시 한번 깨닫자

남가주목사회, 2.8동경 독립운동 100주년기념 조찬기도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주관 2.8동경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가 뉴서울호텔에서 8일 오전 7시30분에 열렸다.

박세현 목사(부회장) 사회로 열린 조찬기도회는 합심기도는 김영구 목사(증경회장), 강태광 목사(총무), 샘신목사(직전회장)이 기도 인도했으며 김근수 목사(OC 목사회회장)가 '조국과 동포를 위해', 김영구 목사(증경회장)가 '오늘의 기도회와 말씀을 위해', 강태광 목사(총무)가 '조국과 해외 한인교회를 위해', 김향로 목사(남가주교협이사장)가 '남가주



남가주 목사회 주최 2.8동경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 위해', 최학량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장)가 '조국의 안보와 군대를 위해', 샘신 목사(직전회장)가 3.1절 정신계승과 100주년 기념예배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날 객견섭 목사(예은교회 담임)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1905년부터 15년까지 한국교회 부흥 기였고 교회모습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2.8동경 독립운동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의 시대적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개 운동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관진 목사가 인사 및 기념사를 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연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연목회 신임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세번째가 신임회장 남상국 목사

남상국 회장, 기도와 격려 당부

남가주 연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 연세목회자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0일 오후 5시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한 남상국 19대 회장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기엔 너무 부족하다"며 "부족한 제가 회장이 됐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달라. 실수가 있을 땐 꾸짖어 주시고 책망도 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위로와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기대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임택순 장로(국제하나사랑재단)가 기도했으며 지용덕 목사가 '아름다운 삼김, 아름다운 축복'(롬 8:31-36)이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어 18대 회장인 조종근 목사가 이임사를 했으며 남상국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오현근 회장(연대 남가주 총동문회)과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이 축사하고 권영대 목사가 축사를 불렀으며 한기형 목사와 김기동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정효남 목사가 본회 임원을 소개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제19대 남가주연세 목회자회 임원명단이다.

△회장: 남상국 △수석부회장: 김기대 △부회장: 전지용, 주후연, 김영숙, 박종대, 신명균 △총무: 정효남 △회계: 권영대.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반창고 콘서트. 사진 우측은 반창고 콘서트 메인게스트 나들 교수(왼쪽), 재즈피아니스트 허주리 자매, 블루엔블루 리더 황종률, 그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 원안은 현역사역자 우성혜, 재재가 현역사역자 모습이다

SOW, 우성혜, 허주리, 황종률, 나들 공연

원하트 미니스트리 주최 반창고 콘서트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 주최 반창고 콘서트가 9일 오후 6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더소스몰 광장에서 열렸다.

이상우 목사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소년소녀 뮤지컬 찬양팀 SOW(단장 에스더박), 찬양사역자 우성혜 자매, 재즈피아니스트 허주리 자매, 그룹 블루엔블루 황종률, 그룹 일기 예보 보컬 출신 나들 교수(백석대학교)가 출연해 은혜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황종률 씨는 "서울에서 한 달에 한번 허주리 자매와 나들 형제와 같이 독서모임하고 있던 중 좋은 느낌을 받게 되어서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으며 마

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 공연을 열여왔다"고 말했다.

황 씨는 "마음이 힘든 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음악으로 전달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창고가 생각났다"며 "반창고 통해 상처 덮어지고 마음이 힘든 이에게 진심담은 마음으로 반창고 붙여주자는 의미로 미주투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터박 목사는 "여러 가지 어슬픈 부분이 있었지만 오랜 지카운티의 중심지인 더소스몰에서 크리스천 문화공연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훌륭한 콘텐츠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건강한 애국인의 삶" 주제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2월 집회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김희창)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LA 영생장로교회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강한 애국인의 삶"의 주제로 2월 집회를 가졌다.

1부 차기학 부회장의 사회로 국제오네시모교회 대표인 박상구 목사 기도, 이기홍 목사 설교, 고남철 목사의 헌금기도 후 가요연주가 있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최정학 부회장의 사회로 "한반도 통일 준비론-애국인의 삶 만들기"로 회장인 김희창 박사가 "한반도통일준비론-인터컬처럴 접근 제시" 제목으로 PPT를 사용해 복합화 돼가는 한국 상황에서 문화권에 파고 들어가 낮아져서 접근하고 민족 정

체를 세워가며 적절하고 도덕성을 지켜가는 상황화 된 통일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평가와 제언으로 한반도미래포럼 대표인 이안범 박사는 "한국의 지도자가 이 인터컬처럴 리더십을 접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분열상은 없었을 것이고, 이 리더십이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뉴 트랜드로 영향을 세계적으로 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김희창 회장은 "해외 미주 동포들에게 고하는 애국인 만들기 삶 선포문"을 낭독했다.

이어 이정근 박사는 한국군 생활과 평양방문에서 얻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애국의 길을 협조하는 신앙인의 길을 제시했다.

이어 애국가를 부른 뒤 류당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본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3월 모임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기형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하며 "교회와 애국신앙"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213)268-936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서부교회게 게시판

블레싱 콘서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주최 블레싱 콘서트가 2월 24일(주일) 오후 5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블레싱콘서트는 안산시립합창단(지휘 박신화 교수)가 출연한다.

▲문의: (714)484-1190, (213)381-1190

남가주교회음악협회 리딩세션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리딩세션이 23일(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신화 교수(안산시립합창단 지휘).

▲문의: (310)381-9835

Cal Grad 남가주한인동문회의 정기동문회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Cal Grad) 남가주 한인동문회의 정기 동문회 모임이 3월 3일(주일) 오후 4시 예심교회(정찬균 목사)에서 갖는다. 명부작성 관계로 사전참석 연락 바란다.

▲문의: 박종승 회장 (714)336-1514, 양홍규 총무, (714)852-8485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일독학교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대표 주혜홍 목사)는 통근통독 일독학교를 LA와 OC에서 연다. LA지역 장소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비전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강사는 남승우 목사. 또한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열리며 강사는 정선희 전도사. OC지역은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조은교회내 성경통독 사역원에서 열리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은 김민섭 목사가, 오후 7시부터 9시30분은 정소진 전도사가 각각 강사를 맡는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재수강자는 120달러, 교재비는 별도다.

▲문의: (714)287-2854

교육부 사역자 청빙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초등부(3-5학년)와 중등부(6-8학년) 사역자를 청빙한다. 청빙조건은 각 분야 2년 이상 사역 경험한 영어가 능통한 신학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이며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추천서 1부, reference 2명이다.

▲제출 및 문의: pjoochan@lolmc.org



GIM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예배에서 정운명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국제선교대회 통해 민족교회 연합과 부흥 이루자

GIM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예배에서 비전 미션선언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월넛 크릭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교회(정운명 목사)가 설립 17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0일 G.I.M Missions(지아이엠 선교)위원장들과 함께 설립을 기념하면서 교회 간의 연합된 선교를 통해복음화에 진력하기로 결속했다.

Mike Fong 목사(샌프란시스코 엘소브란테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관교회 Rafi Petrossian 목사(월넛 크릭노스크릭 이관교회)의 개회기도와 Kevin Waldrop 목사(산로렌조 빌리지 교회)의 메시지, 박세록 장로(샘복지재단 국제총재)의 축사, Steve Whillite 목사(콩코드 파크 헤븐스 커뮤니티교회)와 찬양팀의 특별찬양 그리고 참석한 한인교회 교인들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메시지에서는 GIM교회 설립의 비전과 미션의 정신으로 올네이션에 G.I.M(글로벌 국제선교 교회연합)선교대회를

통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소망과 사랑의 감명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역설했다.

박세록 장로는 축사를 통해 GIM교회가 복음적 교회들 간의 협력을 통한 교회들의 연합 사역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샘의료복지재단의 그간 힘든 의료선교 사역 과정을 밝히면서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이날 정운명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월넛크릭GIM교회가 국제선교대회를 통해 민족교회들과의 협력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 나아가도록 하자고 전하면서, 미션선언을 통해 미국내 여러 민족 교회들이 연합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각 민족교회들의 부흥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올네이션스 중보기도 연합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 콘서트, 국제선교대회를 통해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자고 밝혔다. (기사제공: GIM교회)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가 주최한 건강한 애국인의 삶주제 2월 집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마추어 성악가 면모 갖추도록 지도"

소프라노 에스더진 명곡 오페라교실 오픈

소프라노 에스더진 '명곡 오페라교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광성교회(담임 이상권 목사 837 S Parkview St. LA)에서 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그동안 사용했던 컴미션을 떠나 광성교회로 장소를 옮긴 후 처음 열린 오페라교실은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시종 진지하게 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수업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 중 'Bridge over trouble water',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 'O Mio Babbio Caro'를 불렀다.

에스더진 선생은 "'Bridge over trouble water'는 이민 1세대가 미국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고 자녀세대인 1.5세와 2세대에게 한인커뮤니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듯이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녹녹치 않은 이민생활에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노래를 통해 이민 생활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소프라노는 "음악은 인종, 나이, 언어를 뛰어넘어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명곡오페라교실은 참석자 개인의 특성

을 발견하고 키워주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치유와 즐거움으로 그치는 시간을 조율해 참여하는 모두가 아마추어 성악가의 면모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에스더진 소프라노는 노스 캐롤라이나 아트스쿨에서 오페라 전공, 맨해튼 뮤직스쿨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저명한 가수 베티 엘렌에게 8년간 사사받은 실력파다. 또한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의 주연을 포함해 수차례의 공연을 했던 인기 예술인이며, 건설링 경험도 풍부하다. 또한 이번 음악교실에선 버클리음대를 졸업한 작곡가 크리스토퍼 이 씨가 반주를 맡고 있다.

명곡오페라교실은 연령 제한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저녁반도 오픈한다. 시간은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20분까지.

▲문의: (213)605-5810

(박준호 기자)



소프라노 에스더진 선생의 명곡오페라교실이 광성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우측은 명곡오페라교실 포스터

한기총, 한교연 6월말까지 통합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7일 두 기관이 올 상반기 내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권태진 한교연 대표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교연 사무실에서 만나, 이달 말까지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요 사회의 등불이었던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근래에 와서 몇몇 지도자들의 이기심으로 분열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

음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교회가 분열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두 기관은 2017년 8월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한교연은 지난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도 통합을 선언했지만 불발됐다.

말했다.

이를 위해 캠프정은 자문위원으로 김선일 교수(웨스턴스틴신학대학원대), 양희송 대표(정어람ARMC), 전경호 목사(다음세대코칭센터)를 각각 선임했다. 연구위원에는 손진원(파스한교회), 김유준(연세차세대연구소), 석준중(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목사 등 교회 및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사역자를 선임했다.

캠프정은 이들과 함께 캠퍼스와 청년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효과적 인 사역 전략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년 및 대학생들의 사역 동향과 논쟁거리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선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갖고 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가 담긴 책자도 출판할 계획이다.

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종교의 경우 국가에 몸담고 있으나 국가주나 민족주의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며 “평화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동안보와 평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교류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미션 중 하나는 통일을 앞당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실사이버대 출신 목회자들도 송목회정회원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새 임원 선출도 이어졌다. 대표회장으로는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이 추대됐다.

에 교회를 옮겼고 지금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봉사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청년도 있었다. 부산의 한 대학생 이모(23)씨는 “개척교회에선 터 섬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생활과 병행하러니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 교회를 옮겨 밀바닥부터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석교회가 비난을 받아 교회를 옮겼다는 폐친도 있었다. 김모(33)씨는 “선교비를 유용해 목사님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썼다는 언론 보도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아무 상관없는 나까지 온갖 조소와 비아냥을 듣는 거 같았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대형교회로 남편과 함께 옮겼다는 김모(49·여)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지만 정작 은혜가 별로 없었다. 은혜 구제적인 신앙체임이 없어 교회를 옮겼다는 이들도 있었다. 20대 이모(여)씨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정작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 괴로웠다. 몇 달 방향 끝

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교회가 분열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피스메이커 되자”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미 국가조찬기도회서 설교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6일 미국 워싱턴DC 워싱턴힐튼 호텔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인테너셔널 런천(오찬)’에서 전 세계 120개국 100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미국 마크 프라이어 상원의원과 랜디 헬트그랜 하원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가조찬기도회 첫 강사로 등단한 소 목사는 자신의 가정사와 교회개척,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설립 배경을 소개하고 크리스천이 ‘피스메이커’의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해 아멘과

함께 6차례 박수를 받았다.

소 목사는 “예수님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세상에 가져다 주셨다”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에 모든 크리스천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전쟁과 핵 공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해”라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애쓰는 노력이 열매를 맺어 한반도가 하루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기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리치몬드 미국 인신매매감시대사와 자넷 카가메 르완다 영부인, 샘 브라운백 미국 상원의원 등이 나서 인신매매의 해악과 집단 학살, 종교자유 문제 등을 소개했다.

국가조찬기도회에는 1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하며 8일 리더십 오찬을 끝으로 폐막된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청년연구소’ 발족

복음적인 캠퍼스와 청년선교 위한 연구소로

남미의 유명 복음주의 신학자인 새뮤얼 에스코바는 자신의 저서 ‘벽을 넘어 열방으로’를 통해 “포스트모던 문화 속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적 방향을 제시해 줄 전문 청년 선교 연구소가 설립됐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11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캠퍼스청년연구소(캠프청년)’ 설립 예배와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캠프청은 “요즘 청년 선교 현장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 사례들을 모으고 분석, 성찰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연구소 개설을 통해 캠퍼스 선교와 청년 사역이 처한

환경과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며 설립 목적을 밝혔다. 캠프청은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청년 사역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복협은 지난해 12월 서울 신반포교회(홍문수 목사)에서 협동목사로 시무 중인 김성희 목사를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김 소장은 한국글로벌리더십연구원에서 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소장은 “기존에는 1인 위주로 운영되는 연구소가 많고 현장 사역에 치중하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이에 협업의 필요성을 느껴 각 분야의 연구위원을 모시고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

“통일 준비는 송실대가, 결정은 하나님!”

2019 송목회 총회, 박종화 이사장 통일강연

송실대 출신 목회자 모임인 송목회(조성기 대표회장)가 12일 서울 동작구 송실대에서 총회를 갖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송목회는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1800여명의 목회자가 가입돼 있다. 이날 총회에는 12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송목회는 송실대가 1897년 평양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뒤 1954년 서울로 옮겨온 대학인 만큼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평화통일 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의 통일강연으로 시작됐다. 박 이사

장은 “통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 우리가 통일을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하나님의 일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교류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은 체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합치는 일”이라면서 “북한에 뿌리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송실대는 양쪽의 다리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간부문의 교류가 이어지

이단 맹신 ‘종교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독사역’ 세미나서 삶·인격 망치는 개념 제시

한국교회 안에서 중독 문제는 여전히 생소하다. 중독에 빠진 성도를 ‘거룩하지 못하다’며 멀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교계의 중독 문제 전문가들은 11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열린 ‘교회 중독사역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와 청년 사역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알고월부터 게임까지 중독이 확산될수록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교회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불사하며 영혼을 파괴하는 중독자들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는 “중독은 자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독을 “미래와 건강을 훼손하면서 현재에 취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술을,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을 신처럼 생각한다”며 “회복이 종교의 순기능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 활동에서 뒤편에 끼어있는 영혼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앙이 중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독은 사람들이 적당한 보상을 찾지 못한 채 대체재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라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영적 고민에 대해 교회가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조그런 창설 강령목, 김일성 외숙부 아니다”

북교연 유관지 목사 ‘노동신문 종교기사 분석’ 발표

한국교회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가계(家系)는 기독교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거론된다. 김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1892-1932)은 권사이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창설자이자 목사인 강량욱(1904-1983)은 김일성의 외숙부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금껏 정설처럼 여겨진 이 내용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교회연구원장 유관지 목사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남산삼리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통일포럼 2월 정기모임에서 “목회자나 교회사학자 가운데 강반석을 ‘권사’로, 강량욱을 김일성의 외숙부로 기록하거나 언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며 “한국교회가 북한교회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목사는 이날 ‘노동신문의 종교 관련 기사 분석 중간보고’란 제목의 발표에서 “강반석을 권사로 칭하는 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땃대로스 임명’”이라며 “권사였다는 기록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반석은 4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결혼 전엔 하리교회에서, 이후엔 송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강반석은 16세에 남편 김형직(1894-1926)과 결혼해 20대 이후 여러 지역으로 거주지를 계속 옮겨 한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장로교 권사 직분이 당시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장로교의 경우 1955년 제4회 총회에서

다.

조민을 바른미디어 대표는 종교중독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종교중독은 이단 및 사이비종교에 빠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목회자 개인을 맹신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조 대표는 “종교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교회의 직분이나 명제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신앙생활로 삶과 인격에 변화가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주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신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북 평주에서 중독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윤성모 목사와 유성필 기독교중독연구소장, 영화감독 김상철 목사 등도 강연을 했다.

권사 선거를 시행키로 결의했다.

이어 “강량욱 목사는 김일성의 외조부인 강돈욱의 육촌 동생”이라며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강 목사를 김일성의 외숙부로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외조종부’라 정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유 목사는 또 1990년대 후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파악한 분단 전 북한교회 수치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 전 북한교회 숫자에 대해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3040개라고 말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며 “이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날 때 나온 수치인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나 조선총독부 통계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기독교사전’을 편찬 중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분단 이전 북한 장로·감리교회 수가 2,118개라고 최근 밝혔다. 여기에 성결교회 등 기타 교단 교회를 합해도 2500여 개가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1940년 당시 조선총독부 통계에 이북 5도의 교회는 2,289곳이 있던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이 빠진 점을 감안하면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유 목사는 “북한교회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본 아니라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와 교과서 등의 1차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한국교회 내에서 더 많아져야 한다”며 “이들 자료를 통일선교 시각으로 살펴볼 때 북한교회 연구의 정확도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화 쌓여 불신, 믿음으로 버텼지만…

폐북 친구들이 교회 옮긴 속사정

교회에 잘 나오던 교인이 갑자기 안 보인다면? 아예 교회를 떠난 예도 있지만 다른 교회로 옮긴 경우도 적지 않다. 왜 교회를 옮겼을까. 혹시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국민일보는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 ‘미션라이프 페이스북’에서 ‘교회를 왜 옮겼는지 아세요? 교회 이동하는 교인들 속사정 들어보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익명의 답변자 등 페이스북 친구(폐친) 100여명이 진솔하게 얘기해줬다. “이사, 결혼하면서 교회를 옮겼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같은 평범한 답변도 있었지만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심각한’ 답변도 있었다.

교회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교인 간 불화 때문이었다. 싸웠다 하면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서울 거주 김모씨는 “목사님과 교인 간 갈등·불화 등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며 “교회는 사람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닌다고 하지만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관점, 어떤 일을 논의할 때 방향의 견 차이가 있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목회자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덧새와 차별도 교인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발생했다. 전

모(여)씨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 틈에서 내 말이 무시당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결국 교회를 옮겼다”고 했다. 박모(여)씨도 “결혼하고 집 근처 오래된 교회에 나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왕따’ 교인이었다. 1년이나 구역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름도 거꾸로 부르곤… 다시 교회를 옮겼다. 지금은 사랑을 듬뿍 받는 교인이다. 오래된 교회에는 은근 덧새가 있는 거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앙체임이 없어 교회를 옮겼다는 이들도 있었다. 20대 이모(여)씨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정작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 괴로웠다. 몇 달 방향 끝

선교의 창 (117)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선교적 주(Main) 전선인 10/40 Window

'10/40(Window)창'이란 대서양을 낀 서부 아프리카에서 태평양을 접한 동아시아까지, 지구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를 일컫는다. 이 용어는 1990년 미국의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Luis Bush)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Joshua Project 2000, 일종의 미전도종족 임양운동 영향이다. 굳이 이 지역을 특정해 명명하는 이유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살고 있지만 복음화율은 가장 낮기 때문이다. 이 벨트 안에 있는 65개국 중

민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 그 곳 국가들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다. 무엇보다 사상적으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공산권의 막시즘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 벨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이라고까지 강조한다.

3. 주력부대

흑암의 권세가 거대하게 짜리를 치고 있는 이곳에 누가 영적 선봉에 설 것인가? 이 사역을 감

10/40 window는 21세기 기독교 교회가 선교적으로 심자기를 져야 할 최대 미지의 땅이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처럼 보여진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주님의 눈과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저곳을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세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된다. 이제 10/40 창 의 맨 동쪽 끝에 있는 한인교회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중국교회와 함께 영적인 메인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 이 과업은 주님께

10/40 창은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원한 곳이다. 이곳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세계인구의 2/3인 50억이 있으며 95%가 미전도 종족국가이다. 한, 중교회가 힘을 합친다면 영적 주력부대로서 이 능선을 돌파할 수 있다.

55개국이 미전도종족 국가이다. 특히 이곳 정부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적대적이다. 그래서 "세계 기도정보" 책을 만든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은 여기를 가리켜 복음에 대한 "저항 벨트"라고 했다. 영적으로 돌파해야 할 이 메인전선을 누가 어떻게 선교해야 한단 말인가?

1. 문화 인류학적 이해

10/40 Window에는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가 있다. 그 문명은 BC 4000-BC 3000년경 큰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지역에 인류가 일찍부터 터전을 내린 것은 물이 풍부하며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이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 문명들은 점차 토속종교로 승화되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강변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은 후에 이슬람 종교로 수렴되었다.

이슬람은 현재 약 18억 인구를 가진 세계 규모의 종교로 발전하였다. 인더스 강 유역의 인도 문명은 일찍부터 힌두교 지배하에 들어가서 지금은 10억의 인구를 자랑한다. 또한 불교도 싹을 틔우고 그 곳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이되었다.

현재 불교도는 약 5억3천만 명에 이른다. 황하 유역의 중국문명은 한자문화의 발달과 유학교육의 제도화에 힘입어 14억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라들에게까지 그 사상과 윤리적 규범을 제시해왔다. 이와 같은 10/40 창 의 문명들은 독특한 문화적, 영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2. 선교적 현황

2019 Joshua Project 보고에 의하면 이 지역은 세계면적의 1/3에 해당되나 인구는 2/3인 50억 정도가 살고 있다. 미전도 종족의 약 95%가 집중되어 있다. 기껏해야 복음화율은 5% 내외이다. 절대 인구인 47억5천만 명이 타 종교이거나 불신자인 말이다.

나아가 이 벨트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10명 중 8명이 살고 있다. 특히 서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학대받는 어린이들, 높은 문맹률,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다. 시리아를 비롯하여 중동권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난

당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체력적, 기질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들이다. 서구교회와 국가들은 저들에게 이미 좋지 않은 낙인이 찍혀 있다. 십자군 전쟁, 아편 전쟁, 식민지 지배 등으로서 큰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교회나 라틴권의 교회들은 체력, 기질, 경제력 등에서 한계성이 있다. 저들은 자기 민족과 국가, 자기 대륙을 감당하기도 벅하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하는가? 한국과 중국교회가이다. 이 두 세력은 5가지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 중국교회는 양이고 한국교회는 질이다. 둘이 조합하면 놀라운 선교적 파괴력이 드러날 것이다.

4. 사역전략

10/40 Window Belt 는 대부분이 창의적 접근지역이다. 이에 선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앞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다. 영국 프론티어즈선교회 설립자이자 45년 동안 무슬림 전도를 위해 헌신해 온 그레그 리빙스톤(Gregg Livingstone)은 "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을 찾아서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충고한다. 대안이 있는가? 임구를 찾아야 한다. 그곳은 관문도시(Gate Way City)이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고 있다.

대부분 나라마다 도시의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폐쇄된 국가들도 국제화 추세에 따라 관문도시를 만들려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이다. 현지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 소수민족들이 있는 산간벽지로 가면 금방 드러나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더군다나 소수민족 집단은 국가 내 분리주의 운동과 연계하여 오해를 받기 쉽다. 문제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다. 도시에는 미전도 종족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성인, 청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 서서히 선교적 물꼬를 터야 한다. 나아가 많은 지역들의 생활환경이 낮으므로, 우물이나 학교, 병원과 같이 저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효율적이다. 교육이나 금융사역 외에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BAM)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맺음 말

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의 특권이요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날이 오면 사방으로 흩어진 한민족이 결집하게 되며 응축된 힘을 열방을 향해 선교적으로 표출하게 될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기관지 천식

먼지나 곰팡이 등 유발인자를 피해야

의학 발전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질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관지 천식이다. 미국에서는 천식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에게 두드러진다. 이들 소수민족이 도시에 많이 몰려 사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병원을 이용할 기회가 적고 예방 교육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은행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인 전 씨는 일주일 전에 감기에 걸리고 나서 계속되는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이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전 씨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했으나 일시적으로 숨쉬기가 호전될 뿐이었다. 기침과 흰 가래가 끊임없이 나왔고 걸을 때 호흡곤란이 심했다. 또 가슴이 빠근하게 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천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씨는 2년 전에 천식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는데 이후 감기에 걸릴 때마다 천식 증상이 재발했다. 기관지 천식으로 항상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고 다녔고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복용하지 않았다. 가족 중에 전 씨 외에는 다른 천식환자는 없었고 담배나 술은 즐기지 않았다. 검진상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은 분당 100회, 호흡수도 분당 18회로 빨랐다. 전 씨는

육안으로 볼 때 호흡곤란이 보였고 청진상 천명이 심했으며 혈중 산도 농도는 93퍼센트로 낮아져 있었다. 가슴 엑스선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폐 기능 검사상 폐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 있었다. 전 씨는 병력과 증상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식이 악화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더 악화하면 주위 응급실로 가도록 했다. 전 씨는 3일 후부터 점차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고 일주일 후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사라졌다.

기관지 천식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 폐질환을 말한다. 천식을 유발하는 인자는 집 먼지나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담배 연기 등 각종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인자와 유사하다 또 집안의 바퀴벌레도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도 흔한 천식 유발인자이고 감자나 새우, 맥주, 와인 등 아황산염이 포함된 음식이나 해열제로 흔히 복용하는 아스피린과 모트린 같은 약물도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천식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발인자를 잘 알고 피하는 것이다. 천식은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천식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흡입성 스테로이드제를 끊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천식이 악화하는 경우는 조기에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19년 봄 제 28기 “가득지 보내드리고자!”

Silver Mission of New York 뉴욕실버선교학교

2019. 2. 25(월)~4.29(월) 10주간
저녁 7시 식사 / 8시~10시 강의

아래와 같이 제 28기 훈련을 갖습니다

개강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저녁 7시(식사) / 8시 예배

장소 뉴욕교회 (김성기목사 사무) 142-08 32nd Ave., Flushing NY 11354 718-461-0886

강사 선교관련 저명한 강사 / 선교 마인드가 있는 목사 선교사

대상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등록비 \$100

특전 실버선교사로 활동 가능

등록문의 김경열목사 (917) 963-9356 [훈련원장]

단기선교 : 2019. 5. 6(월)~11(토) / 니카라과 예정
(의료, 한방, 이미용, 안경, 사진, VBS(어린이 사역))

실버선교사역

뉴욕실버미션 회장 김재열목사 / 이사장 한재흥목사
(516) 387-9940 / e-mail, smofny@gmail.com

남은 여생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뉴욕실버선교학교 2월 25일(월) 제 28기 개강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2월 25일(월) 제 28기 뉴욕실버선교학교를 개강한다. 4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주간에 걸쳐 뉴욕교회(김성기 목사)에서 진행된다.

뉴욕실버선교회는 은퇴 후 여생을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려는 실버들을 모집해 훈련하고 실버 선교사로 세워 사역 현장에 파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2004년 설립한 초교과 선교단체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마인드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실버 선교사로 하나님나라 확장에 자원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회장 김재열牧사는 “장수시대에 이제 100수를 누리고 살게 됐고 유엔이 재정립한 연령기준에 의하면 80세까지 중년세대”라며 “나이는 오로지 숫자에 불과한데, 문제는 할 일없이 장수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살아갈 30년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 뉴욕실버선교회는 하나님 맡기신 신적 목적을 이루고 확실한 인생의 비전을 심고 가꿔왔다. 고령사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이라고 실버미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더 늦기 전에 와서 훈련하고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맘껏 펼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버선교학교는 영성 소양훈련과 언어 훈련, 사역훈련을 통해 실버 선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훈련한다. 이미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선교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실버선교사를 파송하며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한다.

“모든 민족을 예수께”(마28:19-20), “내 생명 다 하기까지”(행20:24),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빌3:12)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

△모든 실버들의 성숙한 신앙과 축적된 기술 및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현장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봉사하고 복음전파를 위해 세계선교에 동참해 해외선교 사역에 협력 한다

△단기선교를 통해 실제적인 현장경험을 토대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지원 방안을 연구 개발해 땅끝 복음화 시기를 앞당긴다.

△실버선교는 초교과 초교회 선교단체

로서 지역교회와 화합을 도모하고 협조함은 물론 타 선교단체들과 협력함으로써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실버들을 발굴하고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집중 훈련을 실시하므로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한다.

△실버훈련원에서 교육을 마친 실버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



성숙한 신앙과 축적된 기술 경험을 선교현장에... 단기선교 마치고 8개국서 장기 선교사로도 헌신



차와 계획을 통하여 선교지를 알선하고 해당 교회에 추천 의뢰한다.

△은퇴로 인해 발생되는 심리적 소외감과 생활의 나태함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실버선교는 주님이 명령하신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인식하고 여생을 바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뉴욕실버선교학교는 매년 봄 학기와 가을 학기로 년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12

확대를 위해 “한국시니어선교회”(회장 이시영 전 유엔대사/총무 이종훈 선교사)와 2014년에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함께 해외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협력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다.

이번 28기 교육은 25일 저녁 7시 식사를 하고 8시 개강예배를 드리며 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사 △훈련원장 김경렬 목사 △사무처장 장중현 장로.

(유원정 기자)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순종이 인맥입니다.

생명의 자유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맘대로 할 수저는 세상 인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적 인맥인 줄근에 무관합니다. 저는 소유에 애착은 많으나 욕심의 노예는 아닙니다.

저는 글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인기를 위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문장을 나누어야 하고, 이해된 상식은 퍼뜨려야 하기에 오늘도 필을 드는 것입니다. 좋은 인맥은 좋은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보다 빠른 기적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서 옵니다. 서로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사랑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요, 진정한 사랑은 이별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난 80년의 세월이 눈시울을 뜨거워집니다. 하늘에서 속삭이는 천사들의, 불타는 천사들의 대화 속에도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성묘의 계절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에 깊이 뜨겁게 잠겨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고통 속에 자라고, 기다림 속에 열매 맺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어도 주어도 모자란 그 사랑, 천국에서도 하는 말, 무엇 무엇을 주지 못하고 와서 한 없이 한 없이 아쉬움을 토로 할 거예요.

사랑은 조용히 온다 하지만, 사랑은 천천히 온다 하지만, 사랑은 더디고 조요하다는 G 밴드빌트의 시처럼 사랑은 조용히 뿌리로 쓰며드는 것이라지만 아니 천천히 커지고 조용히 느껴지는 것, 그러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멈출 수 있다면 사랑이 아니지요. 추억은 될 수 있어도 그대를 원하는 마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살기로 했나 봐. 언제나 어디서나 물처럼 채워주며 살다보면 세월은 가는 거지.

지금은 그 깊은 떨림도, 가슴 두근거림도, 그 벽찬 깨달음, 그토록 익숙함이 멀리, 하나를 둘로 갈라놓았지만, 나는 그대를 영원히 당신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너무나 진하고 불변하기에, 그 사랑, 그러나 하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이기에 서로의 눈동자가 마주하면 확인된 사랑이겠지만 지금은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결석 없이...변함없이...팔베개를 아쉬워하며...

kkiwon2002@hanmail.net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노영매 권사 (남가주주님의교회)

책이름: '살피심' (김양재 목사)

이제 내 나이 육십을 넘었다. 죽음을 잘 맞이하라는 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며 몇 개월 고민 끝에 그 해결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글쓰기이다. 글쓰기와는 멀지만 했던 내 인생인데 최근 다녀온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의 권유로 글쓰기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독후감 공모전'이 눈에 띄었고, 선정된 도서 중 내가 평소 좋아하던 김양재 목사의 책 '살피심'이 신간으로 나와 있음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이 거듭되면서 결국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살피심'은 창세기 16장에서 19장까지 배경이 되지 않는 짧은 성경말씀에 관한 책이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

마엘, 그리고 롯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책인데, 저자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 자신이 그렇게 말씀으로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왔고, 또한 그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산 공동체의 고백이므로 우리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들릴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온다. 4000년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성경 따로 나 따로

가 아니라 성경이 곧 나이고 내가 성경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믿음이 생겨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게 된다.

이 책에는 각 챕터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 부단히 애를 써도 우리는 곧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데,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한다고 거듭 부르고 있다.

내가 그 길을 가다가 갈등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나의 연약함을 잘 들어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다시 그 길을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 쓰여진 공동체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본인의 치부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도 숨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이야기, 망한 이야기, 부도난 이야기, 불합리한 이야기, 집 두고 판 살림 차린 남편 이야기, 술 먹고 폭력을 가한 이야기, 이런 종류의 술한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나누는 내용이

마치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술 먹고 자매가 차례로 동침하여 아기를 낳고, 남자가 리 상관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거듭 저자는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계속,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무척 부담스러운 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에 적용한 몇 가지 내용을 나누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침서가 바로 성경일진대 여기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속에서 나를 찾게 되었다. 나의 모습이 하갈을 통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다. 곧, 하갈의 도망이 나의 도망이었고,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이 나의 살피심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매일 매일 때로는 하갈처럼, 때로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살피심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내가 누

구인이 머리를 싸벌 필요가 없음을 한결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 때 그 때 허락하시는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나를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둘째, 많은 역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잘되면 회개하고 망하면 감사하라' '최고의 투자는 흐르는 강에 떡을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이 책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게 되었다. 아마도 쓰여진 많은 사례를 읽으며 도전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잔가지들 쳐내고, 비본질적인 것 말고 구원만을 바라고 찾아가는 맛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추구하고 가치를 두며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내가 알고 지내는 집사 한분이 3주 만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있었다. 정말이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그 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 애도함 그리고 아쉬움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셋째로, 좀 더 나의 언어를 살피게 되었다. 그저 아무 생

각 없이 했던 나의 많은 말들, 언어 선택에 있어 소홀함, 말할 때 마음가짐 등등을 책을 통해 깨달음으로 다시 살펴보니 나의 교만함을 볼 수 있었다. 나의 무지함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깨닫고도 행하지 않음은 죄라 하였으니 행하려 결단한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성경에서 허락하시는 나를 붙잡으며 애쓰며 그 길을 가려고 순종하는 내가 되고자 결단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아보는 노력, 그런 언어 사용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꿈꾸어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혼자 변화함은 거의 불가능하나 함께면 가능하다.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로부터 끊어지게 됨을 알게 해주었다. 끝없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드러낼 때에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허락하신 나로 알고 나아가지만 또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교만으로 다시 실수하지만 나는 죄인임을 아는 지식이 있기에 또 다시 겸손해질 수 있음이 다행스럽다.

많은 나의 미성숙과 무지함으로 공동체를 혼들었던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물러온다.

(16면으로 계속)

영어로 보는 성경 (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 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Numbers 6:22-26

(22)The Lord said to Moses, (23)"Tell Aaron and his sons,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Say to them: (24)"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25)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26)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NIV 2011).

WORD & IDIOM

* are to bless~ : ~에게 축복해야 한다. * make his face shine: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다. * be gracious to~ : ~에게 은혜(자비)롭다.

GRAMMAR

■ (22) The Lord said to Moses, (23) Tell Aaron and his sons,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야 할 방법이다 ⇒ 주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야 할 방법이다' 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 This is how~ : ~를(을) 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법이다. This is how 다음에 S+V가 오면 '이것이 주어+~하는 방법이다'로 해석하고, This is how 다음에 'to V'가 쓰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하는 방법이다'로 해석하면 된다. 예)This is how to study English(이것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This is how I study English(이것이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 you are to bless: <Be + to V> 용법으로 '예정, 금지, 가능, 의무, 의도, 운명'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여기서는 의무나 명령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say to them: (24)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들에게 말하라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25)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주께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를 너희위에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롭게 되기를

(26)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주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기를 너희를 향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를 ⇒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 say to them 이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할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다. 즉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에서 This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24, 25, 26절의 각 문장은 The Lord 앞에 May가 생략된 기원문이다. 25, 26절 and be gracious to you와 and give you peace는 and 다음에 May the Lord가 각각 생략되었다.

STUDY & THOUGH

■ 주어진 성경본문은 아론의 축복기도로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재확인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내용을 보면 자신의 백성에 대한 절대적 보호와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 약속하신 복들의 특징은 주로 영적인 것들이며 성부의 보호하심과 성자의 은혜 배부심과 성령의 평강 주심의 특징적 사역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복을 베푸는 권한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에만 주어졌지만 신약시대로 바뀌면서 예수께로 옮겨졌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옮겨졌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할 합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You are the King's priests chosen to proclaim the wonderful acts of God.

livingstone@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은즉(왕상9:1-3)

본문은 솔로몬의 꿈속에 두 번째로 나타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는구나"하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도 서로 이야기할 때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있게 듣고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그리고 최선과 정성을 다해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도와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왕상9:3)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계시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보시면 곧바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즉 전인격이 항상 성전에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왕상9:4)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살펴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솔직하

고 진실하고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은 칼과 창과 단창을 무서워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한방에 넘어뜨립니다. 사울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으신 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을 살려줍니다.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왕상9:4-5)

다윗은 여호와와 법계를 다윗성에 모시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 옷이 벗어지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체통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밋세바의 사건으로 철저히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고 단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마음을 온전케 하

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성실함, 강함,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정직하다, 길을 곧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그 때마다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왕상9:6-9)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은 곧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주 돌이켰다"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불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간음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은 이 한가지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격에도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잘 되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쳐들어오거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버리게 됩니다.

토 이십 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왕상9: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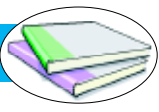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채워줍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냈듯이 허람왕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허람왕에게 20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땅 이름을 "가불땅"이라

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충성하던 허람 왕이 잠시 시험에 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방 위기를 넘기고 다시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필요를 채워실 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h4>금관교회</h4> <p>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동구 망우동 340-(1131-231)</p>	<h4>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h4>로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무실)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h4>새에덴교회</h4> <p>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2)422-07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h4>성문교회</h4> <p>담임목사: 황정석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p>	<h4>성실교회</h4> <p>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h4>성일교회</h4> <p>담임목사: 윤상욱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h4>수정교회</h4> <p>담임목사: 이성준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용두동 416-4(404-270)</p>	<h4>승중교회</h4> <p>담임목사: 김철승 Tel. (02)1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p>	<h4>시온교회</h4> <p>담임목사: 김철승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h4>신길교회</h4> <p>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05-051)</p>	<h4>신천교회</h4> <p>담임목사: 박영석 Tel. (82)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121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h4>신촌교회</h4> <p>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8-45 www.esincheon.org</p>	<h4>안암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33길 50-1 www.anamjil.or.kr</p>
<h4>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p>	<h4>왕성교회</h4> <p>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h4>장위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신일권 Tel. (02)142-6881, Fax. (02)1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h4>주안교회</h4> <p>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p>	<h4>창대교회</h4> <p>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h4>청주주님의교회</h4> <p>담임목사: 최현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p>	<h4>충신교회</h4> <p>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책 소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저자 김성국 목사 (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담임)

본지 발행인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의 저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히스핑거)가 출간됐다.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설교로, ‘새롭게 넘어서는 천로역정 서른여섯 고개’를 단행본으로 엮은 이 책은 본지 발행인 이취임식에 맞춰 선을 보였다. 특히 본지 부설 출판사 ‘히스핑거’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퀸즈장로교회 원로이며 전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의 구조를 갖고 순례자가 장망성을 떠나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성경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읽는 이에게 감동과 결단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추천했다.

또 종신대 스승 김인환 전 총장은 저

자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사랑, 신앙과 인생을 고백하는 설교집 출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풀어낸 우리들 각자의 신앙과 삶의 이야



기이기에 큰 공감을 준다”고 적고 “이 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나그네 인생길에 많은 삶의 지혜와 용기, 유익을 얻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험한 순례 길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6:17하)’는 김성국 목사의 고백처럼 천성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북사인회를 가진 저자 김성국 목사

록 전개와 해석과 적용에 새로움을 더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책은 1부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주제 아래 ‘장망성의 무거운 짐을 진 자’ 등 6편의 설교, 2부 “좁은 문에서 십자가까지” 주제 아래 ‘좁은 길, 옛길’ 등 6편, 3부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집까지” 주제 아래 ‘세 광명의 천사들’ 등 6편, 4부 “아름다운 집에서 헛된 도시까지” 주제 아래 ‘아블루온과의 싸움’ 등 6편, 5부 “헛된 도시에서 기쁨의 성까지” 주제 아래 ‘기쁨의 성’ 등 6편의 설교가 각각 실려 있어 총 36편의 설교가 수록돼 있다.

총 350 페이지, 풀 컬러다.

책에는 또한 QR 코드가 부착돼 있다. 스마트폰의 QR Scanner 앱을 이용해 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동영상 사이트로 이동, 김성국 목사의 설교 영상을 볼 수 있다.

책 구입은 본사(LA: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718-886-4400, nychpres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권당 15달러.

(유원정 기자)

‘새롭게 넘어서는 천로역정 서른여섯 고개’

을 향한 순례의 광야 길을 가는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여섯 살 반에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야만 했던 어린 김성국의 천성을 향한 간절함이 “21세기 천로역정에 걸맞도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15면에서 계속)

먼저는 나의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 본다. 내 죄를 내 공동체에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다짐해본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음을 이 책으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제 주일 설교말씀을 들던 중에 ‘너를 살피고-’ ‘이제는 ‘살핀다’라는 단어가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아브람을 살피시사,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양육시키시고 그를 통해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임하므로, 나도 하나님의 꿈을 이

루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본다. 나에게 주어진 뜻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를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살피심에 은혜를 입고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의 꿈,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살피심은 오직 영혼구원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밀레니엄 크리스천, '지상대명령'이 걸림돌

(1면에서 계속)

따라서 현재 미국사회에서 전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문화적 압력과 관용주의에 어긋나는 일탈이라고 받아들여지게, 가족이건 친구이건 상대방이 믿는 신념이나 신앙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 밀레니엄 크리스천들의 생각이다.

또한 사회 분위기 역시 과거에 잘못 행해졌던 “전도=개종” 공식에 부정적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단순한 행위나 행사도 아니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습관적인 행위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밀레니엄 세대에 교회에 가르쳐야 한다.

전도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주의 제자들들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과 인격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됨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감과 인격과 행실로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마치 가치와 즐거움의 사이에서 생명과 생활이 공유되듯이 살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생리현상으로서 생리가 원활하면 건강하고

생리현상이 부족하면 병약하고 노쇠해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듯이 영적인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밀레니엄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지상명령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미래가 밝다!

AI 기술 상용화 시기상조

(2면에서 계속)

이것은 가짜 유명인 포르노, 이상한 영화 매시업(여러 가지 자료에서 요소를 따와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것), 잠재적으로 악성 정치 중상모략 캠페인까지도 조작해서 유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준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점: 딥 페이크 기술이 점점 더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가짜뉴스나 비디오영상에 더욱 더 속아 넘어갈 위험성이 농후하다. 결국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게 되지만, 탐지기술 역시 AI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6. 알고리즘 처벌

작년 비즈니스나 도소매 관련 AI 데이터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발견됐다. 불균형적인 데이터 세트에 대해 훈련된 시각 알고리즘은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인식하지 못했고,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받은 채용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영속시키는 것으로 입증됐다.

2019년에 기대할 점: 왜곡된 데이터로부터 편향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과 편향성을 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실제로 성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3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3rd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3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19년 5월 21일(화) - 5월 24일(금)** (3박 4일)
- 2. 총회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www.alyeskaresort.com) 5711 W. Century Bl. L.A., CA 90045 (Tel: 310-410-4000)
- 3. 숙박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9일)	2차(3월 9일)	3차(4월 6일)	
2인1실(1인당)	\$ 439	\$ 479	\$ 519	
1인1실	\$ 759	\$ 799	\$ 840	
부부	\$ 859	\$ 919	\$ 999	
원로/공로 목사	(2인 1실)	\$ 219	\$ 259	\$ 299
	(부부)	\$ 658	\$ 679	\$ 719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 1)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5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시는 분들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THE CALIFORNIA PRESBYTERY
* 주소 : Elder Choong K. Rha (나충길 장로) Evergreen Mission Church 6952 Van Nuys Bl. Van Nuys, CA 91405

- 5. 교통안내 LAX 공항에 내리셔서 짐을 찾으시고 나오시면 15미터 전방에 호텔 셔틀버스를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Hilton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매 15분 마다 24시간 운행 합니다. 반드시 LA 공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항으로 오시면 픽업이 어렵습니다.
- 6. 접수 첫째 날 (5월 21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6일) 이후 신청 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7. 동시 통역 및 제반사항 안내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2)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호 텔 : 고승경 목사 (760) 927-5982 관 광 : 정병노 목사 (213) 820-7240 총 무 : 이준우 목사 (818) 282-6154

주후 2019년 1월 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준비위원회

총회장 김재열 목사
위원장 김요섭 목사
서 기 이성주 목사